

온누리교회는 하용조 목사가  
1985년 10월 6일 창립한 사도  
행전적 '바로 그 교회'입니다.

# 온누리신문

- 성경 중심의 교회
- 복음 중심의 교회
- 선교 중심의 교회
- 긍휼을 베푸는 교회
- 그리스도 문화를 심는 교회

창간 1994년 4월 3일

news.onnuri.org

2021년 5월 30일(주일) 제1346호



사진은 지난해 마리아행전

## ‘일어나 함께 가자’

**2021 마리아행전 6월 23~25일 각 캠퍼스 본당  
6월 5~6일, 9일 참가신청, 현장접수만 선착순 마감**

2021년 ‘마리아행전’이 오는 6월 23일(수)부터 25일(금)까지 사흘 동안 오전 10시부터 오후 1시까지 온누리교회 국내 모든 캠퍼스 본당에서 막 오른다. 서빙고 온누리교회 본당에서 진행되는 집회실황(유튜브)을 각 캠퍼스로 송출한다.

2021 마리아행전 주제는 ‘일어나 함께 가자’이다. 아가서 2장 10절 말씀 “나의 사랑하는

자가 내게 말하여 이르기를 나의 사랑, 내 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에서 따왔다.

조호영 목사(여성사역본부장), 유기성 목사(선한목자교회), 이재훈 담임목사가 메시지를 전한다. 6월 23일 ‘나의 사랑 여쁜 자야’ 조호영 목사, 24일 ‘일어나자’ 유기성 목사, 25일 ‘함께 가자’ 이재훈 담임목사가 설교한다.

2021 마리아행전 참가신청은 6월 5일 토요일

주일예배와 6월 6일 일요주일예배, 6월 9일 수요일예배에서 하면 된다. 각 캠퍼스 로비에 설치되는 안내데스크에서 신청하면 된다. 온누리교회 등록교인만 가능하고, 현장접수만 받는다. 대리접수, 온라인, 전화 신청은 받지 않는다. 정부의 코로나19 방역지침으로 인해 본당 참석 인원이 제한됨에 따라 선착순 마감한다. 본당 입장인원은 서빙고 440명, 양재 575명, 부천 200명, 수원 120명, 인천 190명, 대전 180명, 남양주 30명, 강동 130명, 평택 60명, 양지 50명이다. 회비는 1만 원이다.

조호영 목사(여성사역본부장)는 “이번 마리아행전에서는 여성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라는 정체성을 회복하고 기도하기를 바라는 마음에 주제를 선정했다”면서 “하나님의 거룩한 신부로서의 정체성을 회복하고, 거룩과 순결로 주님 앞에 설 때 나라와 민족, 교회와 사회를 위한 기도가 더욱 간절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문의: 02-3215-3667, 3201

각 캠퍼스 목회행정실

/ 정현주 기자 joo@onnuri.org

## ‘미얀마를 위한 특별기도회’

**6월 2일 오후 7시 30분 서빙고 온누리교회 본당  
온누리교회 미얀마예배 창립 25주년 감사예배도**

온누리교회가 미얀마 회복과 복음화를 위해 함께 기도한다. ‘미얀마를 위한 특별기도회’가 6월 2일(수) 7시 30분 서빙고 온누리교회 본당에서 막 오른다. 이재훈 담임목사, 안산M센터와 김포M센터 미얀마공동체, 전주비전대학교 유학생들이 참석할 예정이다. 미얀마 회복을 위해 함께 기도하고 싶은 성도들은 6월 2일 서빙고 온누리교회 수요일목양예배를 예약하거나 온누리교회 유튜브 채널로 참석하면 된다. ‘미얀마를 위한 특별기도회’에서는 온누리교회 미얀마예배 창립 25주년 감사예배도 드린다.

또한 온누리교회는 지난 4월 12일(월)부터 ‘미얀마 회복을 위한 40일 중보기도’를 이어가고 있다. 미얀마에 거주하는 선교사들과 성도들, 온누리교회 리더십들이 기도편지를 작성해서 온누리교회 유튜브 채널에 업로드하고 있다.

최영석 선교사(김포M센터 미얀마예배)는 “미얀마 국민들의 절박한 심정을 품고 하나님의 정의가 미얀마 땅에 흐르도록 모두 함께 기도하자”고 호소했다.

온누리교회는 1996년부터 미얀마 사역을 시작했다. 1995년 미얀마 웰터사역을 시작



으로 1996년 5월 미얀마예배를 개척했다. 지금까지 미얀마 출신 신학생과 목회자를 배출하고 역과송했다.

노규석 목사(온누리M미션)는 “미얀마 국

민들과 선교사들이 온누리교회 성도들의 중보기도에 힘입어 어려운 시기를 이겨내고 있다”면서 계속 기도해달라고 당부했다.

/ 김영선 기자 k4458@onnuri.org

## 류현모 교수의 '세계관 묵상'



류현모 교수  
(서울대학교  
치의학대학원)

오늘날 이 땅에서 기독교는 다른 세계관을 가진 사람들의 공공의 적이 되어버렸다. 무신론인 인본주의, 공산주의 및 포스트모던주의는 그 존재를 과학적으로 증명할 수 없는 신을 믿는다고 비웃는다. 기독교의 도덕적 가치에 대해서는 낱아빠진 도덕률을 이 시대에도 그대로 지켜나가려 한다고 비웃는다. 특히 '성, 생명, 결혼, 가정'이라는 하나님의 생육문화명령에 순종하기 위해 지켜야 할 도덕적 가치에 대해서는 인간의 원초적 본능을 억압하는 나쁜 도덕률로 규정한다. 젠더이데올로기를 앞세운 이들의 '성혁명' 이념은 가정과 교회를 파괴하려는 시도로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는 것에 의문을 제기하는 창세기 3장의 뱀의 유혹과 다르지 않다. 유신론 세계관을 가진 다른 종교들은 예수 그리스도만이 유일한 구원의 길이라는 기독교의 복음에 대해 다른 종교를 무시하는 편협하고 무례한 주장이라고 매도하고 있다. 기독교가 전하는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해 다른 모든 세계관이 비난하고 있다. 그중에서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적대적 불신감을 표현하고 있다. 기독교인들은 적대적인 세상에서 어떻게 자신의 믿음과 기독교를 변호할 것인가? 주된 쟁점을 정리해 보면 "예수 그리스도가 실존했는가? 인간인가 신인가? 십자가 처형

이 사실인가? 장사한 지 사흘 만에 부활한 것이 사실인가? 예수를 기록한 성경을 믿을 수 있는가?"이다. 해 아래 새것이 없다는 말처럼 이러한 의문은 초대교회에서부터 끊임 없이 있었다. 사도들이 한 일은 예수의 십자가 대속과 부활을 증언하는 것이었고, 결국 사도신경이라는 신앙고백으로 요약되었다. 그러므로 역사적 기록 속의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의 역사성을 증명하는 것이 기독교를 변호하는 핵심이 될 것이다. 예수님이 도마에게 "보지 않고 믿는 자들은 복되다"고 말씀하신 것처럼 의심을 가진 사람을 설득하기 위해, 더 굳은 믿음을 위해 우리는 증거를 가져야 한다.

첫째, '그리스도가 실존했는가?'라는 질문이다. 신약성경 저자들이 모두 예수님의 제자나 특수 관계 사람에 의해 작성되었기 때문에 실존 자체를 부인하는 사람들도 있다. 그러나 유대인 역사가 요세푸스는 AD 93년 작성한 <유대인 고대사>에서 "대제사장 안나스가 심판관들이 모이는 산헤드린 공회를 소집하고 그들 앞에 그리스도라 불리는 예수의 형제 야고보를 데려왔다"고 기록했다. 또 로마의 역사가 코넬리우스 타키투스는 AD 112년 작성한 <연대기>에서 기독교인에 대해 "크리스천이라는 이름의 창시자인 그리스도는 본디오 빌라도에 의해 죽임을 당했는데 빌라도는 티베리우스 황제 시절의 유대 통치자였다. 그의 죽음으로 잠시 억제되었던 그 미신은 재발하였는데, 발원지인 유대뿐 아니라 로마 시내에까지 창궐하게 되었다"고 설명했다. 비기독교인들의 공적인 기록들이 역사상 예수의 실존을 부인할

수 없게 만든다.

둘째, '십자가 처형에 의한 죽음과 부활이 사실인가?' 신약성경과 제자들의 서신들은 모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특히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기록한 누가는 역사적 기록이 충분하도록 주변 인물, 당시 다스리던 통치자, 사건이 일어난 위치적인 기록을 상세히 해 두었다. 예수의 죽음과 부활 역시 예전부터 의심의 대상이었다. 그들 중에서 어떤 사람은 예수 십자가 사건과 부활의 사건이 거짓임을 증명하기 위해 도전했다가 오히려 예수를 믿게 되었다. 하버드 법대의 토대를 닦은 사이먼 그리리프는 "예수의 부활을 믿을 수 없는 일"이라 주장했었다. 그러나 강의를 들던 3명의 기독교 학생들의 도전을 받아들여 법정증거를 채택하는 방식으로 문헌증거를 조사하다 결국 회심하고 조사내용을 <전도자의 증언>이라는 책으로 집필하였다. 영국의 재무장관이었던 리틀톤 경과 그 친구 길버트 웨스트는 기독교의 허구성을 증명하려고 증거를 수집하다 <바울의 회심과 그리스도의 부활>이라는 책을 보고서로 내놓고 자신들의 회심을 고백하게 된다. 리 스트로벨은 무신론자였고, 시카고 트리뷴지의 법정담당 기자였다. 범죄가 잦던 시카고에서 악당들의 재판과정과 그 이면의 문제들을 심층취재했다. 그는 기독교로 회심한 아내를 되돌리기 위해 기독교의 핵심인 예수의 부활을 부정하는 증거를 수집하다 회심하고 <부활의 증거>라는 책을 썼다. 그는 모든 역사적 문헌증거를 종합할 때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다섯 가지 사실을 발견했다. 첫

째, 예수는 십자가에서 실제로 죽었다. 둘째, 제자들은 그가 부활하여 자신들 앞에 나타났다고 굳게 믿었다. 셋째, 예수를 핍박하던 바울이 갑자기 회심했다. 넷째, 예수의 동생 야고보도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믿게 되었다. 다섯째, 예수를 장사지냈던 무덤이 비어 있는 채로 발견되었다. 그는 이 다섯 가지 증거들을 종합하면 예수의 부활은 움직일 수 없는 사실이 된다고 주장했다.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신 분을 하나님이 아니라고 부인할 수 있겠는가?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또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인으로 발견되리니"라는 바울의 고백은 우리 모두에게 동일하게 적용된다. 기독교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이요, 그분의 부활을 믿는 신앙이다. 믿지 않는 사람들의 불신과 비난에 두려워하지 않고, 그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는 그분의 실존과 부활을 변호할 수 있는 능력이 반드시 필요하다. 그 변호의 가장 핵심요소는 그에 대한 역사적 증거일 것이다. 기독교는 지난 2천 년 동안 제기된 이러한 질문들에 대해 수없이 많은 답변을 제시한 바 있다. 리 스트로벨은 그동안 예수 부활을 의심하는 수많은 질문에 대해 해당 분야 최고의 전문가들을 찾아가 인터뷰한 결과를 <예수는 역사다>에 총정리해 두었다. 각자 예수 부활을 운유와 두려움으로 변호할 증거들로 준비되어 있기를 기대한다.

**묵상: 불신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과 부활을 어떻게 설득할 것인가?**

## 성경적인 세계관이 필요한 이유

## 관점은 무엇으로 바뀌는가?

사람이 어떠한 관점을 갖느냐는 매우 중요하다. 관점이 특정 이슈를 분석하는 데 영향을 주고, 결과적으로 행동에 영향을 주기 때문이다. 돈에 대한 관점이 바뀌면 돈을 벌고 쓰는 방식이 바뀐다. 가족에 대한 관점이 바뀌면 가족을 대하는 방식이 달라지고, 집안 분위기가 변한다. 자기 자신에 대한 관점은 삶의 모든 영역에서 거대한 영향을 준다.

성경에 나오는 가장 비극적 관점을 꼽는다면 민수기에 나오는 '메뚜기 멘탈'이다.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아낀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니라"(민 13:33).

"우리는 메뚜기다"라고 외쳤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방황하다 정말 메뚜기처럼 스러졌다. 그에 반해 가장 드라마틱하게 연출된 좋은 관점은 다윗이 보여준 '하나님의 군

대' 관점이다. 골리앗 앞에서 숨죽이던 이스라엘 어른들과 달리 소년 다윗은 자신을 하나님의 군대로 보았다.

"다윗이 곁에서 있는 사람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이 블레셋 사람을 죽여 이스라엘의 치욕을 제거하는 사람에게는 어떠한 대우를 하겠느냐 이 할례 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 누구 이기에 살아 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겠느냐"(삼상 17:26).

다윗은 역사에 길이 남는 반전 스토리를 썼다. 다윗이 골리앗을 이긴 이유는 돌팔매질 능력에 있지 않다. 자신과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에 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다윗과 같은 멋진 관점을 가질 수 있을까? 어떤 관점이 개인과 사회를 건강하게 만들까?

이 시대는 어떤 관점이든 자기가 원하는 관점을 가지고, 저마다의 관점을 인정하고 비판 없이 수용하는 것을 최고의 미덕이라고 말한

다. 그것이 참된 평화와 행복으로 이끌어줄 것처럼 생각한다. 틀린 생각이다.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많은 관점을 수용했던 때가 사사 시대였다.

"그 때에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들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삿 21:2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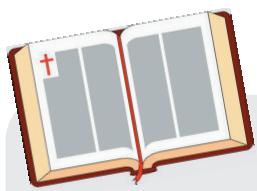
저마다 옳다고 생각한 대로 살았던 그 시대는 가장 어둡고 비극적인 시대였다. 폭력과 살인이 난무했고, 어디에도 평화와 안정이 없었다. 성경은 분명히 말해준다.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할 것이라고(요 8:32). '진리'를 기반으로 한 관점을 가질 때 참된 자유가 개인과 사회에 임한다. 사사 시대에서 보듯 진리가 기반이 아닌 관점들이 차고 넘칠수록 인간은 자유와 멀어진다. 우리에게 성경적인 세계관이 필요한 이유이다.

진리는 인간이 창조해낼 수 없다. 연구해서

알아낼 수 있는 것도 아니다. 오직 주어져야 하고, 들려져야 한다. 계시를 통해서만 전달된다. 바로 성경이다. 우리는 성경을 통해 다윗이 가졌던 승리의 관점을 얻는다. 사회의 수많은 혼란은 성경의 진리를 통해서만 질서를 찾을 수 있다. 많은 사람이 성경은 고리타분한 유물이고, 구시대적인 가르침이라고 말한다. 그렇지 않다. 인공지능과 양자역학 등 눈부시게 발전하는 과학의 시대에도 여전히 우리에게 성경이 필요하다. 시대를 초월한 '진리의 계시'이기 때문이다. 진리가 개인의 삶뿐만 아니라 사회 구축구석을 밝게 비추기를 소망한다.



조준목 목사  
(이수공동체,  
온누리세계관학교)



## 주일강단



이재훈 목사

많은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가장 치명적인 상처는 가족에게서 받은 상처입니다. 그 상처가 자녀들에게 이어져서 가문 전체에 부정적인 영향의 뿌리가 되기도 합니다. 스페인의 수도 마드리드에서 한 아버지와 십대 아들이 심한 갈등을 겪었습니다. 급기야 아들이 집을 나갔습니다. 아버지는 아들을 기다리다 돌아오지 않자 찾아 나섰습니다. 찾고 찾아도 아들을 찾을 수 없었습니다. 아버지는 마지막 수단으로 신문에 광고를 내기로 했습니다. 아버지가 낸 문구는 “사랑하는 파코. 정오에 신문사 정문 앞에서 만나자. 모든 것을 용서한다. 사랑한다”였습니다. 스페인에서 가장 흔한 이름 중 하나인 ‘프란치스코’를 집에서 애칭으로 부를 때 ‘파코’라고 한다고 합니다. 다음 날이 되었습니다. 아버지가 만나자고 한 그 신문사 앞에 800명의 파코가 나타났다고 합니다. 수많은 아들이 집을 나와 아버지의 용서를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말해주는 사건입니다. 상처 준 가족을 용서한다는 것은 쉬워 보일 수 있지만 가장 어려운 일입니다. 그러나 그 일을 행함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믿음의 축복이 무엇인지를 잘 보여 준 사람이 요셉입니다.

### 요셉의 용서와 원리

요셉은 기적을 행한 적도 없고, 놀라운 예언을 한 적도 없는 인물입니다. 그러나 요셉은 예수님을 예표하는 대표적인 인물입니다. 그가 예수님을 예표하는 인물이 된 것은 그가 이집트의 총리가 되었기 때문이 아닙니다. 자신을 죽이려 했고 종으로 팔아넘긴 악을 행한 형들을 용서하는 모습 때문에 예수님을 예표하는 인물로 등장합니다. 십자가의 용서가 어떻게 관계를 회복하고, 하나님 나라의 은혜가 가정에 임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인물이기 때문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요셉의 가정에서 일어난 일이 얼마나 끔찍한가요? 형들이 동생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죽이는 일에 실패하자 종으로 팔아넘겼습니다. 요셉의 이야기가 우리 사회의 이야기입니다. 요셉은 하나님의 은혜로 이집트의 총리가 되었지만, 형들에게 받았던 상처는 치유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 상처가 늘 요셉의 마음 한구석에 있었을 것입니다. 형들이 양식을 구하러 이집트에 왔을 때 요셉은 마음에 숨겨뒀던 상처와도 대면해야 했습니다. 요셉은 그 상처를 십자가로 승리하고 형들을 용서했습니다. 요

셉의 생애 클라이맥스는 총리가 된 것이 아닙니다. 창세기의 기록은 요셉이 형들에게 복수할 힘과 능력이 있음에도 복수하지 않고 사랑으로 용서하고 형들을 대면한 모습을 상세하게 부각하고 있습니다.

요셉의 용서가 우리에게 주는 가장 큰 도전이 무엇입니까? 상처를 준 대상이 가족이라는 것입니다. 요셉이 가족을 용서했을 때 장차 그의 후손으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심으로 이루신 하나님의 용서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이 우리와 가장 가까운 관계에서 일어난 아픈 상처를 어떻게 치료하는지를 보여줍니다. 요셉을 통해 우리가 배울 수 있는 상처 준 가족에 대한 용서의 원리가 있습니다.

### 용서는 서두르지 않고 천천히

첫째, 용서는 서두르지 않고 천천히 이루어 집니다. 용서는 일종의 여행 같아서 상처가 깊을수록 오랜 여행이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순위한 용서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손쉽게 해치우는 용서는 어쩌면 외식일 수 있고, 고통을 대면하기 싫어서 무마하고 덮어버리는 성격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문제를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요셉의 용서는 즉각적이고 즉흥적인 용서가 아니었습니다. 요셉은 형들이 양식을 구하러 왔을 때 자신을 감추고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형들을 시험했습니다. 형들을 정탐꾼으로 몰아세웠습니다. 누명을 씌운 것입니다. 도둑으로 몰아세운 적도 있습니다. 형들을 시험한 것입니다. 요셉은 형들을 찾아가 복수하는 힘과 권력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멈춰 서 있었습니다. 선불리 용서한다고 선언하지도 않았습니다. 이 모든 상황에서 형들을 어떻게 대해야 할지, 자신이 어떤 결정을 내리는 것이 하나님 앞에 합당한지 기도하고 고민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요셉의 용서는 천천히 이루어졌습니다. 요셉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었기에 하나님의 때를 기다렸습니다. 형들이 삶과 가족 이야기를 하는데 거기에 요셉의 이야기도 일부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그때 요셉이 “다시 올 때는 베냐민을 꼭 데려와야 한다”고 했습니다. 막냇동생이 보고 싶어서 그랬을 것입니다. 그래서 형들이 아버지를 설득해서 베냐민을 데려옵니다. 그때 요셉이 베냐민의 가방에 자신의 은잔을 넣어 도둑으로 누명을 씌웁니다. 베냐민을 붙잡아두려 했습니다. 거기까지만 보면 요셉이 형들과 관계를 회복하고 그 땅에 살도록 하려는 의지가 없어 보입니다. 베냐민만 머무르게 하려는 의도가 보입니다. 그때 형 유다가 등장

합니다. 베냐민이 쓴 누명을 자신이 쓰겠다고 합니다. 베냐민을 놓아주는 대신 자신이 벌을 받게 해달라고 간청합니다. 유다는 요셉을 종으로 팔자고 제안한 장본인입니다. 요셉이 그것을 기억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유다가 베냐민을 보호하고 대신 벌을 받겠다고 간청하는 모습을 보면서 요셉이 하나님께서 이 모든 상황에 함께하고 계심을 발견했을 것입니다. 저는 이것을 ‘은혜의 마중물’이라고 표현하고 싶습니다. 어쩌면 요셉이 주저했을지도 모릅니다. 형들과 관계없이 살고 싶은 마음이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요셉이 과거에 머물러 있지 않고, 새로운 삶을 살도록 이끄셨습니다. 성령님께서 요셉의 마음을 움직여서 형들을 용서하도록 유다를 사용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하시고, 역사하시면 사람이 달라질 수 있다는 가능성을 보았을 것입니다. 물론 상대방이 변화 가능성을 보여야만 용서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요셉에게 있었던 억눌렸던 마음과 풀리지 않았던 감정, 형들에게 쌓였던 미움이 터져 나오는 계기가 된 것은 유다의 간청이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은혜로 우리의 마음을 만져 주시고, 성령님께서 역사해 주시고,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되지 않는 일들을 하나님께서 은혜의 마중물을 부어 주시면 우리가 용서의 길을 걸어갈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때를 기다리며 서두르지 않고 용서를 향해 나가는 여행을 해야 합니다. 너무 오래 기다리는 것도 위험합니다. 왜냐하면 처음에는 미움과 분노가 감정 속에만 있지만 오래되면 그것이 인격이 되고 DNA가 되기 때문입니다. 미움과 분노가 DNA가 된다는 것이 얼마나 무섭습니까? 그것이 자녀들에게 전달되는 것이 얼마나 무섭습니까? 그러므로 모든 것을 털어내는 순간을 바라보면서 용서를 향한 여행을 해야 합니다. 서두르지 않지만, 하나님의 때를 바라보며 용서를 위한 여행을 해야 합니다. 그 시기를 다른 사람이 예측해줄 수는 없습니다. 알려줄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라면 하나님께서 그때를 알려 주실 것입니다.

### 용서는 선물입니다

둘째, 용서는 의무가 아니라 선물입니다. 요셉이 의무로 용서하지 않았습니다. 요셉이 용서를 한 것은 용서가 자신에게도 가장 좋은 선물이라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오랫동안 미움과 분노를 마음에 가지고 살아본 사람들은 알 것입니다. 그것이 인생을 얼마나 해치고, 삶을 어렵게 하는지를 체험했을 것입니다. 물리적으로 복수하면 문제가 되고, 행

하지 않으면 마음과 생각에 미움과 분노가 가득 차게 됩니다. 요셉도 그것을 뼈저리게 느끼고 있었을 것입니다. 결국 요셉은 형들을 용서하는 것이 자신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이라는 것을 깨달았을 것입니다. 미국 폴라신학교 루이스 스미디즈 교수님은 용서를 “하나님께서 발명하신 선물”이라고 정의하며 “하나님이 용서하신다는 것은 하나님 당신 자신에 대한 치료책이기도 하다”고 했습니다.

누가복음 15장에서 둘째 아들이 아버지의 유산을 요구하고 집을 나갔습니다. 당시 히브리 문화에서 살아계신 아버지에게 유산을 요구하고 집을 나간다는 것은 단지 돈의 문제가 아닙니다. 유산을 요구하고 집을 나간 것은 아버지를 죽은 자로 여기는 것입니다. 아버지를 죽이는 것과 같은 죄를 짓는 것이었습니다. 아들이 집을 나간 이후 아버지는 하루도 마음 편한 적이 없었을 것입니다. 마음속에 솟아나는 아들에 대한 분노가 날마다 그를 괴롭혔을 것입니다. 그런데 아버지는 아들을 변화시킬 능력이 없었습니다. 아들을 치유할 능력이 없었습니다. 아버지가 할 수 있는 유일한 능력은 아들을 용서하는 것이었습니다.

우리는 화해와 용서를 하나로 보고 오해합니다. 용서는 이루어져도 화해가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화해는 상호 간에 하는 것입니다. 상대방에게도 깨달음이 있고 뉘우침이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용서는 일방적입니다. 상대방이 변화되지 않아도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용서입니다. 그러므로 용서는 일차적으로 자기 자신에게 주는 선물입니다. 내가 용서하면 가해자가 축복된 삶을 살 것 같아서 용서할 수 없다고 합니다. 그러나 용서할 수 없는 마음의 감옥에 갇혀 사는 사람은 가해자가 아니라 피해자입니다. 용서는 피해를 본 사람이 자신을 사랑하고, 자신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입니다. 용서를 통해 자유롭게 되는 최초의 사람이 자기 자신입니다.

나아가 용서는 복음의 능력을 체험하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우리가 용서한 만큼 하나님의 용서를 체험합니다. 하나님의 용서는 이미 예수 십자가 안에서 주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용서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용서를 체험하고 누리지 못합니다. 연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비유로 용서의 연관성을 설명해 주셨습니다. 어떤 사람이 일만 달란트를 빚진 자를 탕감해줬습니다. 일만 달란트는 갚을 수 없는 액수의 빚입니다. 평생 노력해도 갚을 수 없는 빚을 탕감받은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백 데나리온 갚을 수 있는 빚을 진 누군가를 탕감해주지 않았습니다.

(14면에 계속)

## 2021 행복드림콘서트

## “이보다 좋은 선물은 없습니다”

## 아들, 며느리, 딸이 준 가장 큰 선물 ‘예수 그리스도’

이보다 좋은 선물이 없다. 예수 믿고 천국 가는 복음 말이다. 그 좋은 선물을 가족이 줬다면 더욱 뜻깊고 행복하다. 믿지 않는 부모들을 위한 맞춤형 전도집회 행복드림콘서트가 아주 특별하고, 소중하고, 아름다울 수밖에 없는 이유가 바로 이 때문이다.

2021년 행복드림콘서트에서도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열매들이 맺혔다. 아들, 며느리, 딸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선물 받은 부모 27명이 회심했다. 13명은 지난 5월 23일(주일) 서빙고 온누리교회에서 세례를 받았다. / 김영선 기자 k4458@onnuri.org



행복드림콘서트에서 자녀들에게 복음을 선물받고 세례를 받은 장윤자 어르신(좌)과 오사균 어르신(우).

## ‘63분 29초’

믿지 않는 부모들이 자녀들과 ‘2021 행복드림콘서트’를 함께 시청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 기적 같은 시간이다. 행복드림콘서트를 믿지 않는 부모와 함께 시청한 자녀들에게는 손에 땀을 쥐게 한 시간이기도 하다.

김정선 성도(수원 온누리교회)는 올해 행복드림콘서트에서 시어머니 장윤자 어르신께 복음을 선물했다. 25년 동안 시어머니와 함께 살면서 미운 정 고운 정 다 들었는데 유독 복음 전하기가 어려웠다. 올해는 큰 용기를 내서 도전했다.

“저희 어머니께서 제가 결혼할 때 성경책을 가지고 있는 것을 보시더니 ‘내 눈에 흠이 들어가기 전에는 안 된다’고 못 박으셨던 분입니다. 어머니가 무서워서 교회를 몰래 다녔습니다. 5년 전에 어머니께서 암 수술을 하셨는데 그때 온누리교회 수원 캠퍼스 병원전도팀이 오셔서 몇 차례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때도 시어머니께서는 ‘나중에는 감지 모르겠지만 지금은 아닙니다’고 단호하게 거절하셨습니다.”

지난해부터 시어머니 장윤자 어르신께서 다 시 항암치료를 시작했다. 김정선 성도는 날로 기력이 약해지는 시어머니를 보면서 더이상 전도를 미루서는 안 된다 생각했다. 남편과 시누이에게 도움을 요청했다. 신앙생활 하고 계시는 친정엄마와 언니에게 기도를 부탁했다. 그리고 지난 5월 8일 온 가족이 한자리에 모여 2021 행복드림콘서트를 시청했다.

“시어머니께서 행복드림콘서트 영상에 거의

집중하지 못하셨습니다. 내심 걱정이 많았는데 영상편지 코너에서 제가 나오니까 관심을 가지시더라고요. 제가 어머니께 가방을 선물해 드리면서 ‘남편 키워주셔서 너무 감사해요’라고 말씀드렸더니 눈시울을 붉히시며 고맙다고 하셨습니다. 그날 저녁에는 세례를 받았다고 결심하셨고요. 세례 교육을 잘 받으시고 지난 5월 26일 온누리교회 수원 캠퍼스에서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김정선 성도는 아직 부모님을 전도하지 못한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뤄주실 거라고 응원했다.

“저도 오래 걸렸습니다. 몇 년 전에는 행복드림콘서트를 신청했다 취소한 적도 있고요. 그런데 저의 예배가 회복되자 하나님께서 전도에 대한 마음을 부어주셨습니다. 그리고 모든 전도 과정을 이끌어 주셨습니다. 가족에게 복음을 선물하고 싶은 마음만 있다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뤄주실 것입니다.”

## 드디어 부모님이 예수 믿다

오소연 자매(SNS청년부)는 2년 전 행복드림콘서트에서 어머니께 복음을 전했다. 그리고 올해 행복드림콘서트에서 아버지 오사균 어르신도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고 세례를 받았다. 부모님이 예수를 믿었으면 좋겠다는 7년 동안의 기도가 응답됐다.

“가족 중에서 저만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제가 만난 하나님을 부모님께 소개해 드리고 싶어서 2019년 행복드림콘서트에 부모님을 초청

했습니다. 그때 아버지는 교회에 전혀 관심이 없으셨습니다. 어머니만 세례 받고 저와 함께 신앙생활을 하셨습니다. 아버지께서 그 모습을 보면서 조금씩 교회와 신앙에 관심을 가지셨습니다.”

모녀가 너무 행복한 신앙생활 하는 것을 보고 아버지도 달라졌다. 사랑하는 아내와 딸이 믿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고 싶은 호기심이 생겼다. 처음에는 교회까지 바래다주더니 어느 순간 예배를 드리기 시작하셨다.

“아버지께서 어느 순간 복음에 관심을 가지더라고요. ‘우리 가정에 일어나는 일들이 하나님이 하신 것 아닐까?’라고 말씀도 하시고요. 아버지에게 복음을 전할 시기인 것 같아서 행복드림콘서트에 신청했습니다. 아버지께서는 고민도 하지 않으시고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벌써 신앙생활에 재미를 붙이셨습니다.”

오소연 자매는 행복드림콘서트를 준비해 준 온누리교회 전도본부와 출연자들에게 감사 인사를 꼭 하고 싶다고 했다.

“너무 큰 사랑과 헌신으로 행복드림콘서트를 준비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특히 많은 사람이 함께 기도해주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큰 힘과 위로를 얻었습니다.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행복드림콘서트 덕분에 저희 부모님께서 구원을 받으셨습니다. 아직 동생들이 예수님에 대해 알지 못합니다. 이제는 부모님과 함께 동생들에게 복음을 전하겠습니다.”

2021 행복드림콘서트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 온누리교회 맞춤형 전도 유튜브 채널에서 시청할 수 있다. 정성스럽게 쓴 편지와 꽃다발을 준비

해서 부모님과 함께 시청하고 복음을 전하면 된다. 2021 행복드림콘서트 결산자 세례식도 계속 이어질 예정이다. 카카오톡 채널 ‘행복드림 2021’에서 세례 신청 및 중보기도 신청을 하면 된다.

## 세례 간증

## 천국에 대한 확신

아버이날을 맞아 아들 가족이 팽택 집까지 와서 동영상을 보여줬다. “예전에 브라보 전도집회에 아버님이 3일 연속 참석하셨는데 끝내 세례를 받지 않은 것이 20여 년이 흐르는 내내 안타까웠다”는 며느리의 이야기를 듣고 이제는 세례를 받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했다.

나는 미션학교를 다녀서 하나님에 대해 알고 있고,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다는 믿음도 있었다. 가끔 교회를 따라가 예배를 드린 적도 있었다. 하지만 믿음생활을 하지는 못했다. 이제는 세례 받고 하나님에 대해 확신하고 싶다. 우리 손자가 며느리에게 “할아버지는 돌아가시면 천국에 갈 수 있냐”고 묻는다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잘 믿어서 나와 자식들에게 천국에 대한 확신을 주고 싶다.

/ 박종선 어르신

## 진짜 치유해주는 하나님

나는 1946년생이다. 소아청소년과 의원을 운영하고 있다. 지난 12월 코로나19에 걸려 삼관을 13일 동안 할 정도로 사경을 헤맸다. 하나님께 ‘완쾌하게 해주신다면 하나님을 믿겠다’고 다짐을 한 적이 있다.

지금 나는 직장을 다시 다니고, 일상생활을 할 정도로 완쾌했다. 사랑하는 딸이 믿는 하나님을 나도 알고 싶다는 바람도 생겼다. CGNTV로 예배 드리다가 행복드림콘서트에 참석해서 세례를 받기로 결심했다. 치유해주는 하나님께 감사드린다. 더욱 정직하고, 율곧게 살아간다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믿을 것이다.

/ 김계태 어르신

## People

만나고 싶었습니다

죽기 전 꼭 전해야 하는 이야기가 있다면 어떨까? 만사를 제쳐두고 그 이야기를 전하기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을 것이다. 유은진 성도(마포공동체)에게는 복음이 그렇다.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지 못하는 일이 죽는 것보다 더 무서웠다. 바로 그것이 암 투병 중에도 그녀가 전도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다. 자신의 삶을 변화시킨 하나님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 천국의 확신을 전해야만 했기 때문이다.

/ 홍하영 기자 hha0@onnuri.org

## 암 투병도 막지 못한 전도

## 유은진 성도가 복음을 전할 수밖에 없는 이유

박박 밀어버린 머리카락과 다소 거칠어 보이는 피부...

유은진 성도가 암 환자라는 사실을 나타내는 것은 단지 그뿐이었다. 마스크 너머로도 느껴지는 환한 미소, 세상에서 가장 즐거운 이야기를 하듯 들뜬 목소리를 듣고는 도저히 그녀가 암 환자라고 믿을 수 없었다. 카페에 앉아 있는 수많은 사람 중에서 그녀가 가장 행복해 보였다. 불과 몇 주 전까지만 해도 항암치료를 받으면서 생사를 오갔다는 사람에게서 어떻게 이런 행복이 느껴질 수 있을까? 도대체 그 행복이 어디서 나오는지 궁금했다.

“저는 지금 당장 죽어도 천국에 갈 거라는 확신이 있거든요.”

천국에 대한 확신이 유은진 성도가 행복을 잃지 않는 비결이다. 이 확신은 하나님께서만 줄 수 있는 믿음이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 십자가에서 못 박혀 돌아가셨다는 사실과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얻었다는 사실이 유은진 성도의 삶을 180도 바꿔 놓았다. 자신의 삶을 바꿔 놓은 복음을 다른 사람에게도 꼭 전하고 싶었다. 아니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었다.

## 꿈에서 만난 나의 하나님

유은진 성도가 하나님을 만난 지는 7년밖에 되지 않았다. 40년을 하나님을 모르고 살았다. 하나님은 없다고 굳게 믿었다. 그래서 누군가 전도하려고 하면 눈빛부터 차갑게 변했다.

“하나님을 전혀 모르고 살았습니다. 알고 싶지도 않았고요. 저의 이성으로는 성경 말씀이 도저히 이해가 안 됐거든요. 성도들은 말도 안 되는 허무한 이야기를 믿는 사람들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뉴스에 나오는 교회의 잘못된 모습들만 보였고요. 그게 전부라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저를 전도하려는 사람들과 언성을 높이고 싸운 적도 있습니다.”

그래도 하나님은 유은진 성도를 꼭 만나고 싶으셨나 보다. 직접 꿈에 찾아와주셨다.

“어느 날 꿈을 꿔는데 엄청 커다랗고 밝은 빛의 형상을 하신 예수님이 저를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저는 하나님을 전혀 알지 못했는데도 그 빛이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 빛이 얼마나 따뜻하던지 저도 모르게 마음이 울컥하더라고요. 그 꿈속에서 교회에 가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꿈은 꿈이었다. 하나님과 인상 깊었던 첫 만남이 시간이 지나면서 잊혔다. 그런데 하나님

은 그 약속을 잊지 않으셨다. 유은진 성도가 교회로 발걸음을 옮기게 만드셨다.

“그 꿈을 꾸고 바로 교회에 가지 않았 습니다. 그런데 몇 개월 후에 제가 설암에 걸렸 습니다. 허에 암세포가 생겼다고 하더라고요. 너무 무섭고 두려웠습니다. 너무 절망스러워서 하루도 마음 편히 잠든 날이 없었습니다. 뜬눈으로 밤을 새우다가 문득 그때 그 꿈이 생각나더라고요.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집 근처 교회에 가기 시작했습니다. 정말 신기하게 교회에 나가면서 잠을 잘 수 있었습니다. 어느새 제 마음에 평안이 찾아왔거든요.”

항암치료를 끝내고 동생의 권유로 온누리교회 ‘마리아행진’ 집회에 참석했다. 그곳에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다.

“사실 마리아행진 집회에 처음 참석했을 때 어리둥절했습니다. 사람들이 큰 소리로 뛰면서 찬양하고 기도하는 모습이 낯설기도 했고요. 마리아행진 집회 둘째 날 하나님께서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꿈에 나타나셨던 예수님이 다시 오셨습니다. 저를 꼭 만나고 싶어 하시는 하나님이 도대체 어떤 분인지 몹시 궁금했습니다.”

## 입원하는 날 전한 복음 그리고 기적

그날 이후 삶이 달라졌다. 매일 성경을 읽고 공동체 활동과 사역을 시작했다. 날이 갈수록 하나님과 더욱 가까워졌다.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할수록 혼자만 알고 있을 수 없었다. 하나님께서는 전도의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이끌어주셨다. 유은진 성도가 처음으로 복음을 전할 대상은 사랑하는 가족이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성지순례를 통해 전도의 중요성을 알게 하시고, 전도 폭발훈련으로 전도에 대해 깊이 배우게 하셨습니다. 깨닫고 배운 대로 가족들을 위해 기도하고 복음을 전했습니다. 남편과 함께 성지순례도 다녀오고, 재수학원에 다니던 딸을 찾아가 예수님 이야기를 들려줬습니다.”

열매가 바로 나타나지는 않았다. 그래도 포기하지 않고 꾸준히 복음을 전했다. 복음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 알기 때문에 전하지 않을 수 없었다. 지금 누리고 있는 기쁨과 평안을 사랑하는 가족과 함께 누리고 싶었다.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만 있다면 무엇이든 감당할 수 있을 것 같았다. 그 정성이 통했다. 남편과 딸이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했다.



암 투병에도 불구하고 복음을 전한 유은진 성도(마포공동체, 사진은 입원하기 전 찍은 영정사진).

그런데 지난해 12월, 7년 만에 암이 재발했다. 이번에는 혈액암(림프종 4기)이었다. 자궁경부와 난소, 폐, 췌장, 목, 왼쪽 눈까지 온몸에 암세포가 전이된 상태였다. 병원에서는 위험하니 하루빨리 입원하라고 했다. 병원에 들어가면 살아서 나올 수 있을지 모르는 위급한 상황이었다. 그 와중에도 유은진 성도의 머릿속에는 전도해야 한다는 생각뿐이었다.

“암이 재발했다는 말이 전혀 무섭지 않았습니다. 옛날 같았으면 하나님을 원망했을 텐데 마음이 평안하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실 것 같았거든요. 언제 죽을지 모르니 그 전에 가족과 친구들에게 꼭 복음을 전해야겠다는 생각밖에 안 들더라고요.”

병원에 입원하기 전에 영정사진을 찍었다. 바로 그날은 유은진 성도가 전도 계획을 실행하는 날이었다. 아침 일찍 가족과 친구들을 만나 복음을 전했다. 오늘이 아니면 안 된다는 절박함이 있었다.

“입원하는 날 아침에 어머니와 아가씨를 찾아갔습니다. 저를 보시더니 눈물부터 쏟으시더라고요. 저희 시댁은 불교 집안인데 저를 따라 결신기도를 하셨습니다. 죽을지도 모르는 데 뭔들 못해줄까 싶은 마음이셨던 것 같아요 (웃음). 아가씨는 저를 위해 기도하겠다고 기도하는 방법을 알려달라고 하더라고요. 감사기도가 절로 나왔습니다.”

오후에는 친구들을 만났다. 얼굴을 보지 못하는 친구들에게는 영상통화를 걸어서 복음을 전했다.

“영정사진을 찍는 곳에 와 준 친구와 선배

언니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지방에 있는 친구들에게는 영상통화를 걸어서 결신기도까지 시켰고요. 그날은 제가 뭐라고 하든 다 들어주더라고요. 이렇게라도 복음을 전할 수 있어서 얼마나 다행이었는지 모릅니다. 이리려고 내가 암에 걸렸구나 싶더라고요. 한 친구가 제 모습이 너무 평안해 보인다고 ‘네가 하나님을 믿어서 다행이야’라고 말하더라고요. 그 말이 제게는 그 친구가 하나님을 만나고 싶다는 말로 들리더라고요.”

유은진 성도의 간절함이 통쾌하게 통했다. 가족과 친구들이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했다.

“제가 병원에 있는 동안 가족들과 친구들에게 변화가 생겼습니다. 다들 저를 위해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어머니께서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계신다고 하시더라고요. 너무 놀라고 감사했습니다. 남편은 성경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읽기 시작했는데 지금은 하루도 빠짐없이 읽고 있습니다. 매일 밤 저를 위해 기도도 해주고요. 기적과도 같은 변화를 경험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믿을 수 없는 기적이 또 있었다. 지난 5월 4일 유은진 성도의 검사 결과 온몸에 전이됐던 암세포가 모두 사라졌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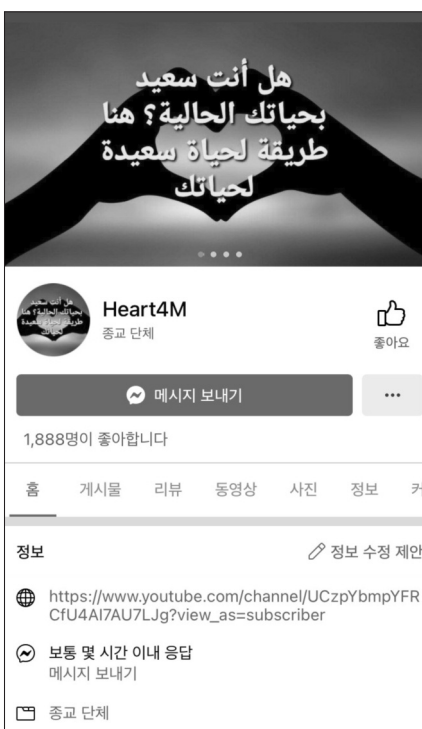
“6차 항암을 마치고 검사 결과를 들었는데 암세포가 모두 사라졌다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실 것을 믿고 있었기에 기쁜 마음으로 감사기도를 드렸습니다. 제가 체험한 이 기적 같은 일들을 또 다른 사람들에게 전할 것입니다.”

# 무슬림선교를 위한 새로운 도전

## 선교 플랫폼 SWIM의 ‘글로벌온라인연합사역’

절대 흔들리지 않을 것 같았던 아랍의 이슬람이 흔들리고 있다. 영국 공영방송 BBC의 보도에 따르면 아랍권의 주요 10개국에서 이슬람을 떠나는 사람들이 늘고 있다. 폐쇄적인 현지에서는 체감되는 변화가 없지만 온라인에서는 그 파도가 매우 크고 높다. 온누리교회 SWIM(세계인터넷선교협의회)은 이 파도가 하나님께서 일으키시는 선교의 파도라 확신하고 이슬람선교를 위한 하나님의 부르심에 반응하기 시작했다. 그것이 SWIM의 ‘글로벌온라인연합사역’이다. 무슬림 구도자들을 선교사들과 현지교회가 연합해서 전도하게 하는 새로운 사역이다.

/ 김영선 기자 k4458@onnuri.org



L국 J선교사가 운영 중인 페이스북 페이지

‘선교사 한 명이 평생 헌신해서 한 영혼을 전도하면 감사한 땅’

이슬람의 본산인 아랍권 선교에 대한 세간의 평가다. 폐쇄적인 문화와 환경 탓에 선교사들의 활동에 제한이 많고, 복음에 관심을 보인 무슬림을 지속적으로 양육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예수를 구주로 영접했어도 홀로 신앙생활 하는 것이 힘들어서 다시 이슬람으로 돌아가는 경우도 있다. 오죽하면 아랍을 ‘선교사들의

무덤’이라고 부를까. 그 아랍권에서 변화의 바람이 불고 있다.

### 이슬람을 떠나는 사람들

이슬람을 떠나는 사람들이 늘고 있다. 무슬림을 지나치게 옥죄고 있는 종교지도자와 위정자들에 대한 실망이 그 이유다. 미국 〈타임지〉에서는 이 같은 현상이 발생한 이유로 ‘종교지도자와 정당에 대한 신뢰도 상실’을 꼽았다.

영국 공영방송 BBC에서 2019년 아랍 10개국에서 설문조사를 했다. 2만3천여 명이 참여한 설문 응답자 약 18%가 “자신이 비종교적”이라고 했다. 2013년 조사와 비교해서 5% 이상 증가한 수치다. 영국 경제잡지 〈이코노미스트〉에서도 “많은 무슬림이 이슬람을 포기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이코노미스트〉는 “아랍 세계 곳곳에서 종교적 정당과 권력을 잡는 데 도움을 준 성직자들에게 등을 돌리고 있다”면서 “젊은 튀니지인의 거의 절반, 젊은 리비아인의 3분의 1, 젊은 알제리인의 4분의 1, 젊은 이집트인의 5분의 1이 자신을 비종교적이라고 답했다”고 보도했다.

### 아랍에 ‘온라인사역’ 바람이 분다

이처럼 아랍의 변화가 심상치 않다. 온라인에서는 그 변화가 더욱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다. T국에서 사역하는 G선교사가 페이스북(facebook)을 활용해서 온라인사역을 시도했

는데 놀라운 결과를 냈다. G선교사가 페이스북 북에 복음 영상을 업로드하고, 아프가니스탄과 터키인 420만 명을 대상으로 광고를 했다. 그 결과 150만 명이 복음 영상을 시청했고, 그 영상을 본 9,600명이 복음에 흥미가 있다고 G선교사에게 메시지를 보냈다. 그들에게 양육과 예배를 제공했더니 145명이 예수를 구주로 영접했다. 지금도 신앙생활을 이어가고 있다.

L국 J선교사도 페이스북 광고를 활용해서 복음 영상을 홍보했다. 29만 명이 복음 영상을 시청했고, 37명이 회심했다. 복음 영상을 홍보하는데 쓴 비용은 단돈 413달러(약 46만원)에 불과했다. G선교사와 J선교사 외에도 많은 선교사와 선교단체가 중동에서 온라인사역을 시도하고 있다.

### 뒤에서 섬기는 온라인 촉매선교 지원, 연합, 콘텐츠 제공, 성도 참여

SWIM의 ‘글로벌온라인연합사역’은 선교사와 현지 교회를 지원하는 촉매선교다. SWIM은 최근 중동에서 온라인사역을 희망하는 수명의 선교사들을 모집했다. 선교사들은 자신들의 사례를 공유하며 서로에게 도움을 주고 있다. SWIM이 자리를 마련하자 선교사들이 온라인 선교와 연합선교방안을 찾고자 노력하고 있다.

SWIM의 ‘글로벌온라인연합사역’의 핵심은 연합이다. 현지교회와의 연합은 쉽지 않은 일이다. SWIM의 ‘글로벌온라인연합사역’은 현지교회와의 연합을 역할분담으로 풀어가고자

한다. 예를 들면 선교사가 온라인 사역으로 복음에 관심 있는 무슬림과 접촉했다면 선교사는 그 영혼을 현지교회에 연결시킨다. 현지교회 성도가 SWIM이 개발하는 SNS성경읽기 앱으로 교제하고 양육하는 것이다. 무슬림권 배경을 가진 현지교회 성도의 돌봄이 있다면 더욱 효과적인 양육을 할 수 있다. 선교사와 현지교회의 연합은 서로에게 큰 힘이 될 것이다.

SWIM의 ‘글로벌온라인연합사역’은 다양한 사역 콘텐츠를 제공한다. 선교사들과 현지교회가 말씀뿐만 아니라 온라인 아버지학교와 어머니학교 등을 할 수도 있다. 이러한 온라인 가정사역 콘텐츠는 깨어진 가정이 많은 중동 지역에 좋은 영향력을 미칠 것이다. 두란노아버지학교와 어머니학교에서도 온라인 사역을 준비하고 있다. 현지에서도 가정사역 콘텐츠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SWIM의 ‘글로벌온라인연합사역’은 성도들의 참여가 꼭 필요하다. 온라인선교는 영적전쟁이고 전쟁에는 기도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온라인선교 현장에는 무슬림들의 욕설과 비난이 가득하다. 페이스북 복음 광고에 대한 반응 80% 이상이 욕설과 비방이다. 이러한 열악한 환경에서 복음 전하는 선교사와 현지교회에는 위로와 기도가 절실하다. 성도들의 기도가 그들에게 큰 위로가 될 것이다. 전도대상자들이 예수님을 영접하기까지 과정에도 성도들의 기도가 꼭 필요하다. SWIM의 ‘글로벌온라인연합사역’은 성도들이 중보기도를 할 수 있게 구체적인 상황과 전도대상자들의 정보를 지속적으로 공유할 계획이다.

## 사역칼럼



전영수 장로  
(SWIM)

코로나19 시대를 살아가며 SWIM의 사역이 크고 작은 변화를 맞이하고 있다. 중동 T국에서 시리아 난민들을 대상으로 진행하던 온라인 난민선교가 변화를 시작했다. SWIM이 사회적기업 엘칸 버스를 설립했다. 그동안 시리아 난민들이 쇼핑몰 광고 사진의 배경 제거 작업과 보정작업 등을 하게 해서 생계를 스스로 해결하게 했다. 숭한 어려움 끝에 이제 한국의 스튜디오들로부터 품질과 납기 만족도가 높다는 인정을 받

고 있다. 조만간 더욱 성장하리라 예상한다. 하지만 최근에는 단가가 내려가고 주문도 감소해서 난민 스스로 생계를 해결하는 데 먹구름이 끼게 되었다. 엘칸버스는 이 문제를 타개하기 위해서 온라인쇼핑몰에 입점하는 기업에 직접 서비스하기로 했다. 이를 위하여 상품의 상세페이지 제작에 힘쓰고 있다. 상세페이지는 한글 광고가 많이 들어가 난민들이 제작에 참여하기가 쉽지 않지만, 일감이 늘면 배경 제거와 보정작업이 같이 증가하므로 난민들에게 주는 일감도 늘게 된다. T국은 코로나19로 인하여 상당히 강도 높은 봉쇄(Lock down)가 진행되고 있다. 그런데도 난민교회가 전도와 양육을 열심히 한 덕분에 교회가 부흥했다. 그들이 모일 곳이 없어서 지난 부활절에는 호텔을

## 연합과 참여 그리고 기도

빌려 100여 명이 예배를 드리고 세례식도 진행했다. 중동에서 세례는 목숨을 내놓고 신앙생활 하겠다는 의미다. 난민교회가 참 많이 성장해서 감사하다. 앞으로 이 난민들이 받던 난민에서 주는 난민으로 쓰임 받기를 기대하며 사역의 성장을 꿈꾼다.

SWIM의 ‘글로벌온라인연합사역’은 오랜 고민과 현장 선교사들과의 긴밀한 협의 끝에 나온 산물이다. 수년 전부터 이슬람이 흔들린다는 이야기를 다양하게 듣고 있었지만, 온라인에서 무슬림들이 복음에 뜨겁게 반응한다는 소식은 하나님께서 분명히 중동선교에 개입하신다는 확신을 갖게 했다. 온라인선교로 SWIM을 부르시는 것도 분명하게 느끼게 되었다. 이 부르심에 화려한 온라인선교전략을 세우는

것으로 응답할 수 있고, 이재훈 목사님이 강조하시는 촉매선교의 자세로 응답할 수도 있었다. 하나님은 우리를 후자의 길로 인도하고 계신다. 선교사와 현지교회가 앞서고 우리는 뒤에서 그들을 도움으로써 촉매가 되고자 한다.

하나님은 온라인 영역에서만 아니라 선교사도 부르시고, 현지교회와 가정사역 기관도 부르신다. 후방의 성도들도 부르신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기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이 연합이다. 쉽지 않은 과제지만, 온라인 영역을 최우선 과제로 도전하고자 한다. 후방 성도들이 전방 선교사들이 품은 영혼을 함께 품고 선교하는 일이 온라인에서 꼭 이루어지기를 기대한다.

## 영화로 읽는 성경

## “그는 내 이름을 온누리에 전할 사람이다”

## 카라바조의 ‘바울의 회심’(1601년)



김진국 집사  
(한강공동체,  
고려대 인문예술과정  
주임교수)

일반인에 비해 크리스천이 많이 쓰는 단어 중 하나가 ‘강박(剛復)’이다. 강박은 굳셀 강(剛), 괴박할 박(復)자를 사용한 다. 사전적으로 ‘성미가 깔깔하고 고집이 세다,

괴박하고 융통성이 없다’는 뜻이다. ‘괴박하다’도 원래는 ‘괴박하다’였는데, 발음하기 쉬운 ‘괴박하다’로 표준말이 바뀌었다. 하지만 ‘강박하다’는 ‘강박하다’로 바뀌지 않고 그대로 쓴다.

구약에서 가장 강박한 사람이 누구일까? 아마 이집트 왕 바로일 것이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강박하게 하셨기 때문에 바로는 모세와 아론의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그대로였습니다”(출 9:12).

그럼 신약에서 가장 강박한 사람은 누구일까? 여럿 있겠지만 나는 개인적으로 바울이 가장 먼저 떠오른다.

바울은 유대인이었지만 로마시민권을 가지고 있던 아버지 덕분에 자신도 그것을 얻었다. 로마가 유럽을 지배하던 당시였기에 로마 제국의 시민권은 엄청난 특권이였다. 바리새인이었던 바울은 어려서부터 엄격한 교육을 받았다. 사울은 유대식 이름이고, 바울은 로마식 이름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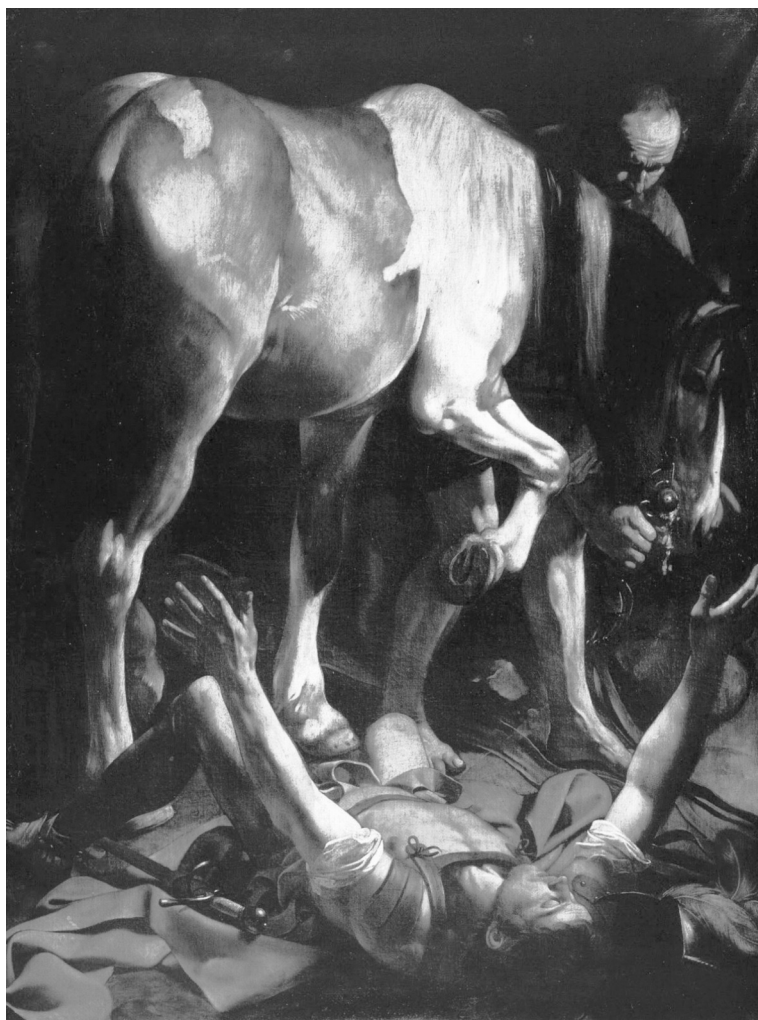
바울은 자신을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빌 3:6)라고 인정할 만큼 강박한 성격의 소유자였다. 융심리학자이자 가톨릭 사제인 안셀름 그윈은 이렇게 말했다.

“심리학적으로 볼 때 바울은 강박관념에 시달린다. 그는 의지할 분명한 규범이 필요했다. 다문화사회에서 자란 그에게는 상대성에 매몰되지 않기 위해 어떤 확고한 원칙이 필요했을 것이다... 그의 이름 바울은 ‘조그만 사람’을 뜻한다. 바울은 작은 체구에 급사등이었다. 게다가 특이한 병을 앓았다. 하인리히 쉐리어에 따르면 바울은 간질병을 앓았다고 한다.”

강박한 바울은 스테반이 돌에 맞아 피를 흘리며 죽는 순교의 현장에 있었지만 스테반을 구하기 위한 어떠한 행동도 취한 적이 없다(행 22:20).

역사학자 헨드릭 빌렘 반 룬의 “고대 율법의 이름으로 새로운 죄를 저지르는 젊은 폭도들의 괴수”라는 표현처럼 바울은 예수의 추종자들을 무조건 가두고 고문하는 무시무시한 박해자였다.

그런 바울에게 인생을 완전히 바꾸게 만드는 엄청난 사건이 일어난다. 오늘 카라바조가 그린 ‘바울의 회심(回心)’(1601년)이다. 함께



카라바조가 그린 ‘바울의 회심’(1601년 작, 산타마리아 델 포폴로 성당).

묵상할 성경 본문은 사도행전 9장이다.

## 강박한 바울의 회심(回心)

그날도 바울은 예수 추종자들을 잡아들이기 위해 말을 타고 군사들을 이끌고 기세등등하게 다메섹으로 가는 길이었다. 바울이 다메섹에 다다랐을 즈음 갑자기 하늘에서 빛이 내려와 그를 둘러쌌다. 깜짝 놀란 바울이 땅에 쓰러졌다. 그때 바울이 음성을 들었다.

“사울아, 사울아! 네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당신은 대체 누구십니까?”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지금 일어나 시내로 들어가거라. 네가 해야 할 일을 일러 줄 사람이 있을 것이다.”

바울과 함께 가던 사람들도 소리만 들릴 뿐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서 멍하니 그 자리에서 있었다. 카라바조의 그림은 바로 그 순간을 포착했다. 화면 위에서부터 쏟아지는 강렬한 빛은 말 잔등을 거쳐 쓰러진 바울의 몸 전체를 비추고 있다. 말에서 떨어진 바울은 눈이 뒤집혔다. 검은 눈동자는 사라지고 희멀결계 흰자위만 남아있다.

바로크 미술의 거장 카라바조는 테네브리즘(tenebrism) 즉, 강렬한 명암의 대비를 통해서 그림 속 주인공에게 신비로움과 성스러움을 부여하는 기법의 창시자이다. 프랑스의 조

르주 드 라 투르, 스페인의 벨라스케스, 네덜란드의 렘브란트 등 많은 거장이 카라바조의 테네브리즘 기법을 모델 삼아 자신들의 회화 세계를 구축했다. 카라바조는 ‘바울의 회심’에서도 이 기법을 유감없이 발휘한다. 전체적으로 어둡지만 주인공인 바울에게는 빛이 집중적으로 쏟아진다. 이 빛은 무엇을 상징하는 것일까?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누구든지 나를 따르는 사람은 어둠 속에 다니지 않고 생명의 빛을 얻을 것이다”(요 8:12).

앞이 보이지 않게 된 바울은 진리를 온전히 바라보지 못하는 사람, 진리에 눈먼 자의 상징이다. 말에서 떨어져 쓰러진 그에게 쏟아지는 빛은 ‘구원의 빛’이다. 쓰러진 바울은 하늘을 향해 두 팔을 들고 있다. 찬양하는 듯한 이 포즈를 기독교 도상학(Christian Iconography)에서는 ‘오란트(orant) 자세’라고 부른다. 무조건적 항복, 무조건적 순종의 상징이다.

앞이 보이지 않게 된 바울은 예수님의 음성이 들리는 하늘을 향해 두 손을 든다. 구원의 빛은 ‘율법의 빛’을 대신한다. 바울을 사로잡고 있던 율법적인 강박은 메시아의 빛을 받아 조건 없는 사랑으로 변할 것이다. 예수를 믿고 따르는 자들을 핍박하던 이전의 바울은 죽고, 생명의 빛을 받고 새로 태어날 것이다.

그림에서 바울을 짓밟을 것처럼 압도적인

위세로 앞발을 치켜든 말은 세상적인 권위를 상징한다. 말은 겸손한 나귀와 대조된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탔던 것은 고귀함과 권능을 상징하는 말이 아니라 겸손함을 상징하는 나귀였다. 비록 자발적인 것은 아니었지만, 바울의 낙마(落馬)는 세상적인 권위를 내려놓고 메시아의 권위에 복종하게 될 바울의 새로운 삶을 상징한다.

쓰러진 바울의 주변에는 망토와 투구, 바울의 칼 등이 여기저기 어지러이 널려있다. 로마 제국의 일원으로 예수의 추종자들을 핍박하던 무기들은 이제부터는 바울의 것이 아니다. 바울은 물리적인 폭력을 이용해서 사람들을 박해하던 무기를 버렸다. 바울에게 구원의 빛이 비추고, 구원의 음성이 들릴 때 무장해제당했다.

## 초대교회의 위대한 전파자

이제 바울은 완전히 새롭게 무장할 것이다. 물리적인 무기가 아니라 영적인 무기들을 가지고 말이다. 예수님의 싸움은 평화와 용서를 위한 싸움이기 때문이다(마 5:9). 바울은 마귀의 간계에 맞서 대적하기 위한 영적인 전쟁에 관해 언급하면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말한다. 그가 말한 하나님의 전신갑주, 그리스도인이 갖추어야 할 영적인 무기는 구원의 투구, 믿음의 방패, 성령의 검, 의의 흉배, 진리의 허리띠, 평안의 신발 등이다(엡 6:14~17).

바울은 율법에 사로잡혀있을 때는 보지 못했던 것을 메시아의 빛, 성령의 빛을 받아 눈을 뜰 수 없게 되었을 때 비로소 주님을 볼 수 있는 눈이 열렸다. 그는 암흑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을 만났다. 아무것도 보지 못하게 되었을 때 진정한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다.

“그는 내가 선택한 사람으로서 내 이름을 온누리에 전할 사람이다”(행 9:15).

성령의 힘으로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된 바울은 예수님의 말씀을 성취한 충실한 사도가 되었다.

안셀름 그윈은 이렇게 말했다.  
“그러나 그는 회심 후에도 쉽게 변하지 않는다. 격정적 성격, 원칙만 고집하는 공격성, 강박관념은 여전히 남았다. 그러나 이제 그 불같은 성정을 예전과는 다르게 이용한다. 그의 성정이 삶을 숨 막히게 하는 것이 아니라 삶을 끌어내는 데 이용된다. 전에 그리스도인들에게 맞서 격렬하게 싸웠던 것처럼 이제 복음을 왜곡하는 자들과 맞서 싸운다.”

성령에 힘입어 자신과의 내면적 투쟁에서 승리한 바울은 유대교의 한 지파로 전락할 수도 있었던 기독교를 온 세상 끝까지 전하는데 헌신한 ‘초대교회의 위대한 전파자’가 되었다.



목사님, 질문 있습니다!

## 세상의 중심에서 ‘거룩’을 선택하라!

“크리스천이 술과 담배를 하는 게 죄인지 아닌지 잘 모르겠습니다. 솔직히 사회생활 하면서 술과 담배를 아예 안 할 수 없는 노릇입니다. 회식도 있고, 친구들과하고 만날 때도 그렇고요 스트레스를 받으면 술과 담배 생각이 간절할 때도 있습니다. 술과 담배를 개인적인 영역으로 봐야 하는지, 하면 안 되는 신앙적 근거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술과 담배에 관한 고민은 크리스천이라면 한 번쯤 가지게 될 물음이기도 하고, 삶으로 직면하게 되는 질문이기도 한 것 같다. ‘술과 담배를 하는 것이 죄인가?’라는 물음에 대한 가장 성경적인 접근은 ‘죄가 무엇인가?’에 대한 바른 정의가 전제되어야 가능하다는 사실을 기억할 필요가 있다. 성경은 인간의 모든 죄를 일일이 열거하고 있지 않다. 구약과 신약 시대 인간의 죄와 현대 사회 인간의 죄의 양상이 다르게 나타난다. 그럼에도 성경을 통해 우리 삶에 도사리고 있고, 우리를 넘어뜨리려는 죄를 분별할 수 있다. 죄의 근본적인 뿌리가 같기 때문이다.

성경에 따르면 모든 죄의 뿌리는 ‘인간 삶의 중심에 누구를 주인으로 삼고 있는가?’에 관한 것이다. 겉으로 드러나는 죄의 형태는 시대에 따라 다양하게 변해왔지만, 죄의 뿌리에 대한 본질은 변하지 않았다. 이스라엘 왕국 멸망의 역사는 ‘이스라엘의 주인(왕)이 누구인가?’에 대한 그들의 대답이 변질된 역사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교회 역사에서도 교회가 부패하고, 세상의 빛과 소금 역할을 잃어갈 때 이 물음에 대한 대답이 흔들렸다. 술과 담배의 문제도 이러한 맥락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다. 술과 담배를 떠올리게 만드는 상황에서 우리는 ‘내가 누구를, 혹은 무엇을 의지하는가?’에 대한 대답으로 돌아가야 한다. ‘내 삶의 중심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는가?’라는 물음 앞에 자신의 대답이 무엇인지 돌아보아야 할 것이다.

술과 담배가 관계를 쌓고 넓히는 수단으로 작용하는 경우가 많다. “사회생활 하면서 술과 담배를 아예 안 할 수는 없다”는 고민은 바로 이러한 생각을 반영한 것이라 할 수 있다. 술과 담배를 택하지 않으면 당장 큰 손해를 볼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실제로 손해를 보는 상황에 놓일 수도 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 삶을 거기서 끝나도록 버려두지 않으신다는 사실을 기억할 필요가 있다.

하나님은 세상 가운데서 구별된 삶을 살기로 선택한 이들을 포기하지 않으신다. 세상은 거룩을 지키고, 구별된 삶을 살아가려는 이들을 시대 흐름에 뒤떨어진 사람들이라 비아냥 거린다. 그러나 역설적으로 세상은 그들이 지닐 수 없는 ‘거룩’과 ‘구별됨’과 마주하게 되는 순간 그것에 영향을 받게 되어 있다. 독일의 신학자 루돌프 오토(Rudolf Otto)는 “인간은 거룩한 존재 앞에 섰을 때 자신이 진실로 피조물임을 존재론적으로 통감하는 감정적, 미학적, 직관적 체험을 하게 된다”고 말했다. 신비하고 매혹적이며, 두렵고 떨리는 거룩의 체험(누미노제, Numinose)을 하게 된다는 것이다. 세상 가운데서 구별된 삶을 포기하지 않으면, 그 한 사람으로 인해 세상은 두렵고 떨림을 경험하게 될 것이다. 고리타분하다고 비아냥거리기도 하고, 분위기를 못 맞추느냐며 타박을 받을 수도 있겠지만, 세상이 거룩의 능

력에 압도될 것이다. 구별된 거룩의 능력은 세상의 흐름과 대세보다 강하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한다. 하나님은 당신의 편에 서기로 결단한 사람의 인생에 감당할 만한 능력과 지혜와 용기를 주신다.

개인적인 기호의 문제로 술과 담배를 고민하고 있다면 내 삶의 즐거움과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통로가 어디여야 하는지, 더 근본적으로는 무엇을 의지하는 것이 온전한 삶인지 생 각해보기를 권면한다. 하나님 편에 서기를 소망한다. 회사나 사회관계에서 피할 수 없는 불가피한 도전에 직면하고 있다면, 당신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거룩함과 크리스천의 ‘누미노제’가 세상에 흘러가고 있음을 기억하기를 바란다. 하나님은 당신 편에 서기를 포기하지 않는 사람의 인생을 절대로 외면하지 않는다.



정한호 목사  
(Pole2청년부)

### 크리스천을 위한 부부상담

## 자녀 양육 역할 분담과 유연성

“결혼 3년 차 아내입니다. 2살 된 아이가 있습니다. 최근 육아로 지친 나날을 보내고 있습니다. 남편이 집안일을 함께 해주는 것 같지만 부족함을 많이 느낍니다. 종일 아이와 씨름한 저는 남편이 퇴근하면 잠시 육아를 넘기고 싶은데 남편이 많이 피곤해해서 쉽지 않습니다. 내 마음같이 역할 분담이 안 되고, 남편의 육아 역할이 저의 기대에 미치지 못합니다. 육아와 집안일로 갈등이 생겨서 스트레스가 쌓이고 있습니다.”

영유아기 자녀와 미취학 자녀를 둔 부모가 받는 육아 스트레스는 학령기, 청소년기 자녀 양육에서 오는 스트레스보다 높은 편이다. 결혼 초기이기도 하고, 경험적인 면에서도 스트레스를 더 많이 받는다. 자녀는 축복이지만, 부부에게 낯선 환경을 경험하게 하는 측면도 있다. 결혼 초기 겪게 될 수 있는 육아 스트레스를 건강하게 해결해야 할 필요가 있다.

육아 스트레스를 경험하고 있다면 먼저 마음을 환기할 수 있는 개인적인 쉼의 시간이 필요하다. 기도, 말씀 읽기, 찬양 등 영적인 시간과 더불어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시간을 꼭 가져야 한다. 영유아 양육이 힘든 이유는 쉬는 시간이 절대 부족하기 때문이다. 직장생활 했던 아내라면 아이와 함께하는 시간이 행복하면서도 자신이 계속 소모되는 시간으로 여겨질 수 있다. 개인적인 쉼의 시간을 통해서 부정적인 감정과 생각을 해소해야 한다.

육아로 인한 부정적인 스트레스를 풀 수 있는 실천적 방법도 모색해야 한다. 지진은 오랜 시간 지각에 쌓인 에너지가 축적되어 표출됨으로 발생한다. 마찬가지로 육아로 인해서 심신이 지쳐간다는 것은 부정적인 에너지가 심신에 쌓여간다는 의미로 볼 수 있다. 이것을 해소할 수 있는 시간을 확보해야 한다. 사람 만나는 것을 좋아했다면 의식적으로 대인관계를 할 필요가 있다. 야외활동을 통해서 심리적인 독소가 해소되는 것을 선호한다면 그 시간을 가져보는 것이 필요하다. 이 시간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라는 인식의 전환이 필요하다. 자신과 아이, 가족을 위해서 꼭 필요하다.

육아에 지쳐서 자기연민과 처지 비판 등에 함몰되는 심리 상태를 피할 수 있어야 한다. 자신의 마음에서 일어나는 부정적인 감정과 생각을 알아차릴 수 있어야 한다. 가능하면 긍정적으로 생각과 인식을 전환할 필요가 있다. 일어난 사건이 아니라 ‘해석의 중요성’을 적용해 볼 필요가 있다. 육아로 인해서 지쳐있다면 많은 것이 부정적으로 해석될 수 있고, 그 원망이 배우자와 환경을 향해 분출될 수 있다. 힘들지만 긍정적인 해석을 시도해 본다면 변화를 경험할 수 있을 것이다.

부부는 육아에 대한 자신들의 기대 수준을 조정하고, 육아 역할 분담에 대해서 진지하게 이야기를 나눠야 한다. 육아와 가사에서 ‘작거나 하찮은 일은 없다’는 생각의 전환이 필요하다. 빨래, 청소, 이유식 만들기, 목욕시키

기 등 모든 것이 중요하고 의미 있다. 혼자 모든 것을 감당하기 어려운 일들이다. 부부가 함께 해야 한다. 직장 일을 하는 남편이라면 어떻게 가사와 육아에 참여할 수 있을지 아내와 상의하고 절충안을 찾아야 한다. 도와주는 육아와 가사가 아니라 ‘당연히 해야 하는 육아와 가사’라는 인식이 필요하다. 물론 직장 일을 마치고 귀가한 남편이 에너지를 비축할 수 있는 시간을 우선 제공하는 것이 좋다. 종일 육아로 지치고 힘들었기 때문에 퇴근한 남편이 일정 부분 육아를 맡아주는 게 당연하다 여길 수 있다. 하지만 위임할 시간을 잘 선택하는 것이 부부에게 필요한 지혜다. 육아에 포함된 세부적인 일들을 진솔하게 나누면서 업무 분담을 해야 한다. 서로 담당해야 할 부분을 나누고 실천한다면 일명 ‘독박육아’라는 수렁을 헤쳐나올 수 있을 것이다.

역할 분담에 있어서 ‘유연성’도 필요하다. 부부가 육아에 관한 업무 분담을 할 때 유연성이 꼭 필요하다. 역할 분담이 고정되어 있다면 이 또한 갈등을 유발할 수 있다. “왜 해야 할 일을 하지 않는가?”, “이것은 당연히 당신이 해야 할 일인데 언제 할 것인가?” 등 또 다른 양상의 갈등이 발생할 수 있다. 따라서 역할 분담을 분명히 하면서도 역할에 대한 유연성이 필요하다. 아내나 남편이 힘든 일이 있다면 배우자가 대신 해주는 경우도 있다. 역할의 유연성은 심리적 유연성과 관련이 있다. 부부 관계에서 갈등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된다.

자녀는 분명 하나님께서 부부에게 주신 놀라운 축복의 선물이다. 말할 수 없는 기적과 하나님의 창조 역사에 동참하는 것이다. 아이를 고대하면서 임신 기간을 거치고 출생하는 모든 과정은 놀라움이다. 그럼에도 아이가 태어나면 부부와 가정은 많은 변화를 겪게 된다. 이 변화가 때로 스트레스로 여겨질 수 있다. 육체적으로 힘들고, 자존감이 떨어질 수도 있고, 심적 에너지가 매일 고갈되는 경험을 하기도 한다. 이 상황에서 부부의 관계가 소원해지고, 서운해질 수 있다. 통계적으로도 첫 아이를 출생한 이후 결혼만족도가 내리막길을 걷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부부가 한마음으로 서로를 이해하는 자세로 육아의 힘들음을 충분히 나누면서 역할을 분담하고, 역할의 유연성을 가지고, 서로 격려하고 위로하며 감당한다면 부부의 친밀함이 더욱 견고해질 것이다. 자녀로 인한 기쁨이 배가 될 것이다. 부부가 함께 육아의 어려움과 감사를 나누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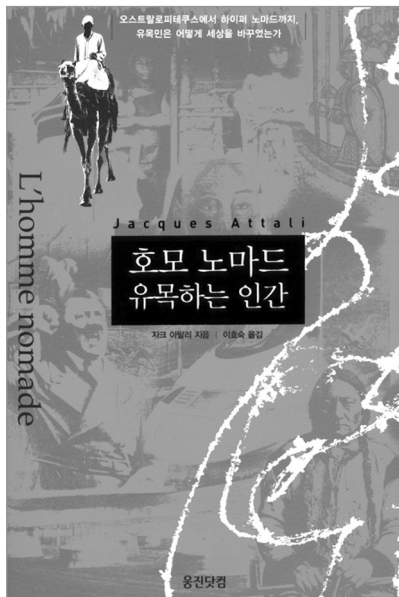
**니눔: 육아로 인한 나의 기쁨과 힘들이가 무엇이고, 배우자에게 기대하는 것이 무엇인가?**



황규복 박사,  
김숙경 소장 부부  
(두란노 결혼예비학교  
부부강사, <그런 당신이  
좋다> 저자)

**책 읽어주는 목사**

## 우리가 추구해야 할 ‘노마디즘’



〈호모 노마드 유목하는 인간〉  
자크 아탈리 저 | 웅진닷컴 | 20,000원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집구석에 머물러 있는 시간이 많아졌다. 그러나 마음만은 여기 저기 다니고 싶었는지 책 한 권에 눈길이 갔다. 오늘 소개할 책 〈호모 노마드 유목

하는 인간〉이다. 우리는 인류 역사를 6,000년 정착민의 역사로 보는 경향이 있다. 하지만 아탈리는 그것을 600만 년에 걸친 노마드의 역사로 풀어내고 있다. 그의 방대한 스케일과 엄청난 자료 처리 능력이 돋보였다. 새로운 관점으로 인류 문화와 역사를 해석하는 것도 놀라웠다. 이 책에는 듣지도 보지도 못했던 중앙아시아의 여러 부족의 역사가 나온다. 로마를 멸망시킨 게르만족의 이동 역사, 몽골제국의 역사, 제국주의, 산업혁명, 1, 2차 세계대전과 미국의 패권주의, 현재를 넘어 미래까지 조망했다.

원래 ‘노마드’라는 말은 라틴어로 유목민을 뜻한다. 중앙아시아 등지에서 목초지를 찾아다니면서 이동 생활하는 사람들을 뜻하는 것 이상은 아니었다. 그러나 요즘 이 말이 ‘디지털 노마드’라고 해서 각종 디지털 기기를 들고 다니면서 시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고 자유롭게 일하는 사람들을 가리키는 유행어가 되었다. 제한된 가치와 삶의 방식에 매달리지 않고 끊임없이 자신을 바꾸어 가는 태도를 가리키는 말로도 쓰인다. 다시 말해 아탈리가 분석한 대로 이 시대는 노마드로 회귀해 가고 있다.

이 책에 나오는 대표적인 노마드는 몽골족이다. 그들은 아주 오래전부터 중앙아시아 평지를 지배했고, 전 세계적으로 영향을 끼쳤다. 그들은 말을 이용해서 빠른 속도로 국가를 정복하고, 한번 점령하면 잔인하게 약탈하고 살육함으로 존재감을 과시했다. 그들의 이동으로 민족이 통합되고, 국가들이 탄생했으며, 상업과 문명이 발전했다.

이와 상반된 또 다른 노마드가 있었다. 유대민족이다. 그들은 자기 나라가 망한 이후 전 세계로 흩어져 어느 때이건 노마드 형태로 나타나지 않고, 어떤 국가에서도 권력을 잡으려 하지 않았으며, 영토를 정복하지도 않았다. 그들은 오로지 자신들의 터전에서 신앙과 문화를 지키고, 공동체 안에서 생존하기 위해 교역이나 교환업에 종사했다. 그들은 성경을 소유하고, 안식일을 지켰으며, 공동체 안에서 예배하는 그들만의 ‘노마디즘’을 익혔다.

전자는 세속적이고 인간적인 욕망의 노마디즘이라 할 수 있다. 물질을 탐하고 눈에 보이는 나라를 건설하며 땅에 대한 끝없는 욕심으로 달려나갔다. 미지에 대한 탐구 정신이 정복과 약탈로 이어졌다. 그러나 후자

는 그렇지 않았다. 그들은 약속받은 미래에 대한 소망으로 살아갔다. 그들에게 노마디즘은 이 땅에서의 정착을 향한 세속적인 노력이 아니라 영원한 세계로 접근하는 유일한 생활방식이었다. 그들은 정복하지 않고 스며들었다. 여행이 아니라 순례의 길을 따랐다. 떠남을 통해 새로운 것을 얻는 너그러운 노마드로서의 삶을 살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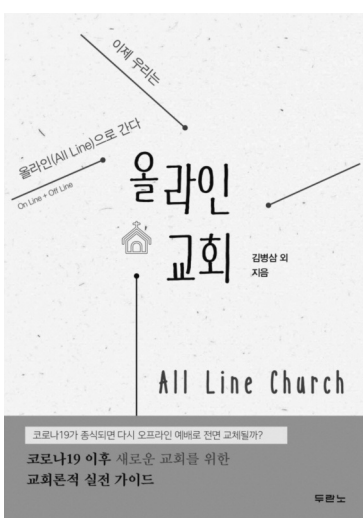
오늘날 우리 사회는 빠르게 노마디즘에 익숙해지고 있다. 우리는 어떤 노마디즘을 추구해야 하는가? 자유분방한 변화를 추구하며 적당히 돌아다니다 안착하며 영리추구가 목적인 삶을 살 것인가? 아니면 눈에 보이지 않는 가치와 약속을 붙들고 포기과 떠남을 통해 은혜를 얻는 영적 노마디즘을 살아갈 것인가? 우리가 추구해야 할 노마디즘을 깊이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다.



허원희 목사  
(온누리교회  
남양주 캠퍼스)

### 두란노 신간

#### 만나교회 올라인(All Line)사역



〈올라인 교회〉  
김병삼 외 저 | 두란노 | 17,000원

를 책 〈올라인 교회〉에 담았다.

책 〈올라인 교회〉에는 코로나19로 방향하고 있는 교회들을 위한 노하우가 가득하다. 차세대, 청년, 교구, 양육, 선교 등 사역별로 온라인을 활용한 예배를 어떻게 기획하는지, 어디에 집중해야 하는지, 활용할 수 있는 콘텐츠는 무엇인지 등 실제적인 내용을 공유한다. 성도들이 온라인 예배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방법 등도 나눈다.

만나교회 올라인 사역은 코로나19 이후 새로운 교회를 향한 도전을 불러일으킨다. 김병삼 담임목사와 사역 담당목사들의 구체적이고 실제적인 노하우가 이 시대에 꼭 맞는 목회를 위한 길잡이가 될 것이다.

“이전과 다른 목회적 환경에서 온라인이나 오프라인이나를 논하는 것은 무의미하다. 오프라인을 기반으로 온라인 사역을 가능하게 하는 ‘올라인(All Line)’ 사역이 필요하다.”

김병삼 목사(만나교회)는 “코로나19로 인해 앞당겨진 온라인 시대에 적응하면서 공동체가 중심이 되는 오프라인 사역에 소홀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만나교회는 이미 10여 년 전부터 온라인과 오프라인이 적절한 조화를 이루는 올라인 사역을 진행해왔다. 한발 앞서 뉴노멀 시대를 대비하고 실천했다. 미리 쌓아온 만나교회 올라인 사역이야기

### 다시 만나는 하나님의 사람들

#### 한국인 최초의 신학자 최병헌



기독교를 알게 됐다. 윤치호의 소개로 존스 선교사의 어학선생을 하면서 성경을 공부했다. 아펜젤러 선교사에게 한문성경을 받아서 한글로 번역하는 일도 했다.

35세에 세례를 받고 정동교회를 중심으로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다. 학문적인 관심이 많았던 최병헌 목사는 배재학당에서 한문을 가르치고, 문서선교에 헌신했다. 한국 최초의 기독교신문 ‘조선크리스도인 회보’ 주필을 맡았고, 신약성경 번역을 끝내고는 한국 최초의 신학지 〈신학월보〉를 발행했다. 서울 종로에 책점을 설립하고, 한국 최초의 도서관을 세우기도 했다.

1901년 〈신학월보〉에 발표한 ‘죄도리’는 한국인이 쓴 최초의 기독교 신학 논문이었다. 최병헌 목사는 그렇게 한국 최초의 신학자가 되었다. 1902년 목사 안수를 받고 상동교회를 섬기다가 아펜젤러 선교사가 소천한 뒤에는 정동교회를 섬겼다. 야학, YMCA, 신학교에서 가르치는 일도 했다.

최병헌 목사는 1858년 충북 제천의 몰락한 양반 가문에서 태어났다. 총명했던 최병헌 목사는 독학으로 한학을 공부했다.

20세가 될 무렵 이미 실력 있는 선비가 되었다. 한양으로 과거를 치러갔다가 부패한 관료들을 보고 입신양명의 뜻을 접었다. 22세에 친구에게 한권의 책을 건네받아 읽고

### 이원로 장로가 들려주는 시

#### ‘천상의 미소’

영롱한 아침 해로 뿌려 주는  
하늘의 기쁨을 한 아름 안고  
우아한 눈길 어디를 바라보나

끔찍한 밤의 아픔을 털고  
날아오르는 날개의 활갯짓  
천상의 미소는 누가 피우나

무슨 옷을 입어야 어울릴 건가  
어떤 춤을 추어야 제격일 건가  
어떻게 노래 불러 보답하려나

눈물짓나 거기에 침몰 않지  
탄식하나 거기에 결박 안 되지  
이기나 거기에 취하지 않지



코로나19, '비대면 양육'로 극복하고 있습니다

### 요셉청년부 '작심삼일 프로젝트'

“불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계 3:20).

요셉청년부 온라인 수련회 작심삼일 프로젝트 '가스펠' (이하 작삼프)을 은혜 가운데 마치게 되었다. 작삼프는 하나님만이 홀로 영광 받으시는 시간이었으며 여호와 그분의 이름이 우리 가운데 존귀하심으로 나타나셨다. 하나님의 빛나는 임재 앞에서 나는 경외함으로 엎드릴 수밖에 없었고, 그의 임재 앞에서 엎드린 작고 보잘것없는 나의 존재를 깨닫게 하셨다.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언택트 시대에서는 모든 것이 쉽지 않았다. 당연한 시간이 더이상 당연하지 않게 되었으며 교회도 예외 없이 마찬가지였다. 언택트라는 현실적인 벽 앞에서 온라인으로만 진행되어야 하는 이번 수련회는 어느 수련회 이상으로 더 큰 은혜를 기대하기에는 어려운 상황이었다. 그렇기에 하나님께 더욱 매달려야 했다. 본질 되시고, 복음 되시는 하나님만을 간절하게 기대하며 그렇게 기도와 금식으로 온라인 수련회를 준비했다.

감사하게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 주셨다. 모든 염려는 기우였을 뿐, 오히려 온라인으로 인해 분리된 공간과 시간이 다른 모

## 비(非)본질을 넘어서 본질 되신 복음으로



요셉공동체 온라인 수련회 '작심삼일 프로젝트' 예배현장.

든 관심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했다. 하나님께서는 오로지 복음과 말씀, 임재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우리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이끌어주셨다. 영광스럽게 임재하신 여호와 하나님을 가슴으로 온전히 느낀 아름다운 수련회였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의 말씀처럼, 환경의 비(非)본질을 넘어서 본질 되신 복음과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며, 그분의 음성에 반응하였

던 귀한 시간이었다. 그리고 마음의 문을 열어드리니 상황과 환경을 넘어서 임재하시는 주님의 얼굴을 대면할 수 있었다.

광야에서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대면했던 수많은 성경의 선진들처럼, 신앙의 숨결을 느끼기 어려운 이 광야의 상황을 넘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한다. 그리고 지금 이 순간에도 여전히 내 마음의 문을

두드리시는 예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자 한다. 그 음성과 부르심에 반응하고, 그 문을 여는 것은 결국 나의 결정이자 의지, 선택인 듯하다. 그리고 이 시간, 나의 모든 선택을 하나님께 올려드린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코로나19라는 긴 터널은 반드시 머지않아 끝날 것이지만, 인생이라는 기나긴 삶의 터널은 아직 갈 길이 먼 듯하다. 비록 길고 긴 터널이지만 그 가운데에서도 오직 본질 되시는 하나님만을 항상 바라보기를 간절히 소망한다. 앞으로의 삶 속에서 있을 거친 풍랑 속에서 내 마음은 차갑게 식어가고, 뜨거움이 여전하지 못할 때가 반드시 올 것이다. 하지만 그 폭풍 속에서도 언제나 문밖에 서서 나를 기다리시는 예수님을 기억하여, 온 힘을 다하여 그 닫힌 마음의 문을 열고 주님과의 친밀한 교제를 다시금 회복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한다.

오늘도 영광의 빛으로 내 삶 가득 임재하시는 여호와 하나님 그분의 이름을 찬양하며, 내 삶의 믿음의 경주를 마치는 그날까지 그 거룩하신 임재와 교제가 내 삶 가운데 항상 떠나지 않기를 간절히 바라고 기도한다. 이 모든 영광은 오직 주님께만 올려드린다.

/ 오남석 형제(요셉청년부)



코로나19, '말씀'으로 극복하고 있습니다

### 일본어예배부 40일 성경 탐구

회사 업무를 해결하기 위해 주재원으로 일본에 다녀온 적이 있다. 그때 일본을 보면서 독특하고 고도화된 문명의 나라라고 생각했다. 일본에 대해 깊이 생각을 해본 적은 없었다. 일본은 내게 가깝지만 먼 나라였다. 그런데 고 하용조 목사님의 <내 백성을 위로하라>는 책을 읽으면서 생각이 바뀌었다. 일본 선교에 대한 비전과 필요성에 동감하게 되었다. 어떻게 하면 내가 일본의 복음화를 위해 미력하나마 도움이 될 수 있을지 고민하게 되었다. 늘 일본을 마음에 품고 기도하게 되었다.

일본을 마음에 품고 기도하던 중에 일본어예배부 40일 성경탐구 과정이 시작됐다. 마치 내 기도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 같았다. 일본어예배부 40일 성경탐구 과정은 내게 선물 같은 시간이었다.

내가 받은 첫 번째 선물은 일본어예배부 리더십들이 함께 만든 40일 성경탐구 책자였다. 한글 텍스트를 일본어로 번역하고, 감수하고, 책자로 완성하기까지 보이지 않는 곳에서 기도하면서 섬긴 리더십들의 헌신에 깊이 감사를 전하고 싶다. 책자를 읽는 것만으로도 은혜와 감동이 있었다.

두 번째 선물은 일본어예배부를 담당하는



김진승 집사(가정사역공동체)는 40일 성경 탐구를 하면서 "복음을 전하는 도구로 쓰임받고 싶다"고 고백했다.

김철희 목사님이 만드신 요약 자료다. 바쁜 목회 일정 중에도 틈틈이 정리하셨을 상세한 요약 자료를 보면서 감탄하지 않을 수 없었다. 성경 속 연대기별 주요사건들과 인물들을 일목요연하게 정리한 자료 덕분에 성경의 흐름을 쉽게 배울 수 있었다. 어렵פות하게 느꼈던 역사서를 명료하게 이해하게 되었다.

세 번째 선물은 성경의 깊은 의미를 묵상할 수 있는 시간과 형편을 마련해 주신 것이다. 많은 분의 헌신과 섬김 덕분에 말씀 나눔이 더욱 풍성해질 수 있었다. 나를 비롯한 조별모임 참가자들 모두가 매주 정밀 행복한 시간을 보냈다. 비슷한 시기 진행된 90일의 기적과 함께 말씀을 두 번, 세 번씩 곱씹으면서 은혜가 더

욱 풍성해졌다. 강의를 들으면서 놓치거나 이해가 부족했던 부분은 유튜브 동영상으로 다시 한번 들었다. 또한 추가적인 질의를 통해 보다 깊은 성경묵상을 할 수 있었다.

일본어성경의 독특한 시적 표현들이 기억에 남는다. 일본의 성경은 오랜 박해의 역사 속에서 많은 이들의 정성으로 지켜진 귀한 말씀이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 이 귀한 말씀이 일본의 땅끝까지 전해지기를 소망한다. 현재 일본의 복음화율은 1% 미만이다. 우리나라와 정치적 입장 차도 여전하다. 그러나 지난 4월 러브소나타를 위한 특별기도회에서 보여준 일본인 예배자들의 거룩하고 아름다운 신앙고백은 그 어떤 것보다 뜨거웠다. 그들의 기도를 들으면서 내 가슴이 뭉클해졌다. 사람의 지혜나 마음으로는 이해하기 힘든 상황도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한 마음으로 기도할 수 있어서 감사했다. 크신 하나님은 우리가 말씀 안에서 감사하고, 함께 기도할 때 분명 기뻐하신다. 하나님께서는 일본을 향한 사랑이 말씀을 통해 확산되기를 바라고 계시는 것이다.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일본에 복음 전하는 도구로 쓰임받기를 간절히 소원한다.

/ 김진승 집사(가정사역공동체)

## CGNTV 자전거 챌린지 ‘달려라! 풍당’

6월 7일까지 CGNTV 홈페이지, QR코드로 참가신청

CGNTV 자전거 챌린지 ‘달려라! 풍당’이 지난 5월 22일(토) 막 올랐다. 스페셜라이딩에는 이재훈 담임 목사, 박종길 목사, 가수 이무송 집사, 유튜버 박위 형제, 개그맨 오지현 성도 등 400여 명이 참석했다. 이촌 한강공원에서 양재천까지 17km의 코스를 달렸다.

이날 이재훈 담임목사는 참가자들에게 “CGNTV 기록 OTT 풍당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통로가 될 수 있도록 힘차게 페달을 굴리자”고 제언했다.

CGNTV 자전거 챌린지 ‘달려라! 풍당’은 참가자 1,200명, 후원금 1억, 총 17km를 목표로 세웠는데 시작과 동시에 참가자 2천 명(22일 기준)을 돌파했다. 기적은 계속되어야 한다. 6월 7일까지 CGNTV 자전거 챌린지 ‘달려라! 풍당’ 참가신청을 할 수 있다. CGNTV 홈페이지와



‘달려라! 풍당’에 참가한 가족이 이촌 한강공원에서 자전거를 타고 있다.

QR코드로 하면 된다. 6월 20일까지 달린 거리만큼 후원하면 된다.

CGNTV는 운동하는 사진을 찍어서 문자(010-6555-2243)로 전송하는 포토 이벤트와 ‘풍당’ 앱에서 ‘

달려라! 풍당 클래스’를 듣고 참여하는 수강후기 이벤트도 함께 진행하고 있다.

/ 김영선 기자 k4458@onnuri.org

## 일대일 가정의 달 특강 ‘하부르타’

일대일사역팀에서 가정의 달 특강 ‘하부르타’를 준비했다. 5월 29일(토) 오후 7시 Zoom(줌)으로 진행된다. 강의는 부친 온누리교회에서 차세대사역을 담당했던 김정순 목사가 한다. 회비는 없다.

이번 특강을 들으면 일대일제 자양육과 자녀양육의 핵심인 나눔과 소통 능력을 업그레이드할 수 있다. 하부르타는 유대인들의 토론회 교육이다. 신앙전수에 탁월한 소통법이다.

문의: 010-4740-9749

## 가족과 함께 추억을! IT사역팀

IT사역팀에서 5월 30일까지 ‘#온누리의가족들’ 이벤트를 실시한다. 온누리교회 국내 캠퍼스를 배경으로 가족과 함께 사진을 찍어 ‘#온누리의가족들’이라는 해시태그를 달아 인스타그램 계정에 게시하면 된다. 인스타그램 사용이 어려운 성도들은 이메일(onnurismart@gmail.com)로 사진을 보내면 된다.

#온누리의가족들 이벤트에 참가한 성도들에게는 추첨을 통해 소정의 상품을 준다. 당첨자는 5월 31일 온누리교회 인스타그램 계정에 발표한다. 당첨된 가족사진은 온누리교회 SNS(인스타그램, 페이스북 등) 계정에 게시된다.

## 온누리 온라인커뮤니티 ‘행복’ 특강

이재훈 담임목사, 최인철 교수, 정진호 장로 강의

온누리 온라인커뮤니티(이하 온라인커뮤니티)에서 5월 25일부터 7월 13일까지 8주 동안 ‘행복’을 주제로 특강을 한다. 이재훈 담임목사, 최인철 교수(서울대학교), 정진호 장로(더웰스 인베스트먼트 대표)가 강의한다. 지난 5월 25일에는 이재훈 담임목사가 강의했고, 6월 1일~22일 최인철 교수, 6월 29일~7월 13일 정진호 장로가 강의한다.

이재훈 담임목사는 ‘관계의 행복’을 주제로 특강했다. “코로나19 팬데믹으로 거리두기가 일상이지만, 온

라인커뮤니티를 통해서 견고한 관계를 맺는다면 결코 무너지지 않는 믿음의 세 겹줄이 될 것”이라고 권면했다.

온라인커뮤니티는 여러 가지 이유로 공동체 활동에 참여하지 못하는 성도들을 위한 온라인 공동체다. 매주 화요일 오후 8시 온라인(Zoom)으로 모임을 하고 있다. 온라인커뮤니티에 참가하고 싶은 성도는 온누리교회 홈페이지에서 신청하면 된다. 문의: 02-3215-3214

/ 정현주 기자 joo@onnuri.org

## “주인공을 기다립니다!”

온누리신문 차세대 글, 시, 그림 등 작품 모집

본지에서 어린이신문 첫 지면을 장식할 주인공을 찾고 있다. 온누리신문에서 6월부터 어린이신문 코너를 선보일 예정이다. 그 지면에 실릴 차세대들의 작품을 모집한다. 차세대들의 신앙 관련 글, 시, 그림, 만들기 등을 사진으로 찍어서 이메일(hha0@onnuri.org)로 보내거나 우편(서울특별시 용산구 녹사평대로

11길 62 5층 온누리신문)으로 보내면 된다.

차세대들이 보내준 작품은 온누리신문 어린이신문 코너에 게재되고, 추첨을 통해 소정의 선물도 보내준다. 온누리교회 소속 차세대라면 누구든지 참여할 수 있다.

문의: 02-6959-0001

/ 홍하영 기자

## ‘한국어티칭스쿨’ 교사 모집

‘한국어티칭스쿨’ 교사를 모집한다. 한국어티칭스쿨은 김포M센터, 남양주M센터, 난민센터 등지에서 이주민과 난민들에게 한국어를 가르쳐주는 과정이다. 지원자격은 한국어선교학교를 수료(1~6기)했거나

온누리교회 등록 교인으로 한국어 교원자격 취득한 성도여야 한다. 6월 4일까지 신청하면 된다. 지원자를 대상으로 6월 5일부터 4주 동안 온라인(Zoom) 심화 교육을 할 예정이다. 문의: 010-2360-1229

## 청소년들이 교회를 떠나는 이유

CGNTV 특집다큐 &lt;안녕히 계세요, 하나님&gt;

CGNTV가 교회를 떠난 청소년들의 생생한 이야기를 담은 특집다큐 <안녕히 계세요, 하나님>을 제작했다. 청소년들이 교회를 떠나는 이유가 무엇인지 적나라하게 담고 있다.

교회를 떠난 청소년들은 공통적으로 “하나님이 교회에 계신 게 맞는지” 질문한다. 교회, 목회자, 성도들에게서 하나님을 찾아볼 수 없기 때문이다. 또 청소년들은 “본인이

교회를 떠난 게 아니라 교회가 나를 떠났다”고 말한다.

이처럼 CGNTV 특집다큐 <안녕히 계세요, 하나님>에서는 우리나라 청소년 크리스천 비율이 3.8%에 불과한 이유부터 기성세대와 교회가 다음세대를 전도하지 못하는 이유를 진단한다. CGNTV 유튜브 채널에서 시청할 수 있다.

/ 김영선 기자

목사 안수 받았습니다

## “말씀의 길을 걷도록 양육하는 목사”



언젠가 담임목사님께서 교역자들에게 하셨던 “하나님의 확실한 부르심 없이는 쉽게 목사 안수를 받으면 안 된다”는 말씀을 마음 깊이 새겼습니다. 2년 전부터 하나님께서 확실하게 응답해주지 않으시면 목사 안수를 받지 않겠다는 결심으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지난해와 올해 여러 번 말씀으로 응답하셨습니다. 이사야서 44장 20절 말씀을 통해서 제가 어떠한 자격이 있어서 섬기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하셨습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먼저 불러주셔서 주의 종으로 섬기는 것임을 알려주셨습니다.

저에게 맡겨주신 주님의 귀하고 소중한 양 떼를 위해 제가 목사로서 할 일은 중보기도하며 주의 말씀으로 양육하는 것임을 깨닫습니다. 민수기 6장 22-27절 말씀처럼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얼굴을 사모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말씀의 길을 걷도록 양육하는 목사 되겠습니다.

/ 한은선 목사(여호수아청년부)

## 제7기 장로아카데미 한창

7월 10일까지 매주 토 오전 10시 30분 온라인(Zoom)

제7기 장로아카데미가 한창이다. 지난 4월 24일 시작된 제7기 장로아카데미는 7월 10일까지 매주 토요일 오전 10시 30분 온라인(Zoom)으로 진행된다. 이번 장로아카데미에는 서빙고, 양재, 인천, 남양주, 일본(요코하마), 미주(앨버틴, 네이퍼빌, 시드니, 아부다비 온누리교회 소속 장로 43명이 참가하고 있다.

박호택 장로(요코하마 온누리교회)는 “전 세계에 있는 온누리교회 장로님들과 소통하고, 믿음을 공유할 수 있어 기쁘다”고 했고, 장민용 장로(LA 온누리교회)는 “한국과 해외 비전교회 장로님들과 교류하면서 어디에 있든지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하나라는 것을 실감하고 있다”고 고백했다.

/ 정현주 기자

## 5월 세례자

|                                                  |                                          |
|--------------------------------------------------|------------------------------------------|
| ■서빙고                                             | 이명근 신유진 김태오 200419 주승리 181214 최병길 890925 |
| 김유정 810714 최은우 200107 김현우 문수진 주영도 이은실 최혜영 970218 |                                          |
| 김효정 811230 최해성 곽아람 김태이 200526 최은호 190615         |                                          |
| 이창수 860407 한승우 190816 김성민 송지은 최재영 홍혜진            | ■SNS                                     |
| 유아 한경식 엄미라 박로하 190716 한민별 200413 이지현 891010      | 입교                                       |
| 김슬현 190607 박지호 김나영 한선웅 김해민                       | 한 봄 190513 최수현 871229                    |
| 김현태 신예슬 ■양재 박하준 201110                           | 유아                                       |
| 김아윤 200220 김시인 850601 박승영 김현주 한종대 류은석            | 이의진 200121                               |
| 김효석 손지은 문화수 681212 송건희 190911 홍소희 200506         | 이도신 김영하                                  |
| 김주안 200410 이민용 880601 송영민 백재경 홍성범 이영주            | 임은유 190304                               |
| 김민철 박혜정 장호재 891121 신진규 200521 황시은 180725         | 임은우 190304                               |
| 김한음 191022 유아 신중현 이유림 황성찬 박루디아 임동규 이선민           | 전사론 200708                               |
| 김진규 박현지 김다예 181024 신진규 180718                    | 전소리 윤주현                                  |
| 나하준 190430 김성욱 임진희 신중현 이유림                       | ■대청                                      |
| 나대균 김강산 김다울 190129 안채은 200827                    | ■허브                                      |
| 박유진 191126 김희중 박상경 안무현 김지영                       | 이예지 980514                               |
| 박정준 남은영 김루아 191010 이 레 191203 이주희 961112         | ■W                                       |
| 박지우 200219 김효재 김은미 이형민 김민정                       | 이진민 021124 김지후 201204                    |
| 박정민 김경란 김예지 190224 이 설 191203 장예원 960826         | 김승후 김슬기                                  |
| 안효아 190508 김홍수 윤은지 이형민 김민정                       | 입교                                       |
| 안효식 김아름 김지완 190905 이지우 190717                    | 이기림 990722 문승주 박소은                       |
| 이나윤 190716 김완영 고은지 이승준 황소영                       |                                          |
| 이경준 양세희 김채아 191010 임시원 191108                    | ■CH PLUS                                 |
| 이은비 181201 김효재 김은미 임현수 류나경                       | 김태휘 930620                               |

## ■ 온누리전도학교 수료 간증



/ 서동일 목사(노달교회)

나는 경상북도 영양에 있는 작은 시골 교회에서 목회하고 있다. 〈생명의 삶〉 큐티 책으로 새벽기도회 말씀을 전하고 있다. 우연히 〈생명의 삶〉에서 온누리전도학교 광고를 보게 되었다. 순간 마음이 이끌려 신청했다.

온누리전도학교 교재인 장경문 장로님의 책 〈날마다 111 전도〉를 읽으면서 큰 감동을 받았다. 예수님을 전하면, 복음을 전하면, 최고의 행복을 전하면, 누구든지 참 평안을 얻고 영생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을 실감했다.

온누리전도학교의 최고의 행복 기본전문과 전도법은 정말 탁월하다. 간결하면서도 복음의 핵심이 농축되어 있어서 불신자들에게 부담 없이 복음을 전할 수 있다. 온누리전도학교에서 사용하는 책자와 전도법에는 한 영혼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마음이 들어있다. 매주 수업을 들으면서 나도 하나님의 마음을 가질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했다.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줄 수 있는 가장 큰 선물은 예수님을 전하는 것임을 다시금 깨달았다. 잊고 있던 소중한 보물을 발견한 기분이었다. 그 소중한 보물을 다른 사람에게도 전달하고 싶다.

좋았던 점이 또 있다. 전도하면서 듣게 되

## 설레고 또 설렌다!

는 반대질문에 대응하는 방법을 배웠다. 반대질문 리스트와 그에 맞는 답변이 일목요연하게 정리되어 있었다. 믿음이 없거나 믿음이 약한 분들에게도 복음을 효과적으로 전하는 방법을 알게 되었다.

온누리전도학교 수업을 마치면서 가슴이 설레고 또 설렌다. 최고의 행복 전도지를 들고 5분 동안 복음을 전할 때 고개를 끄덕이고, 마음의 문이 열려서 예수님을 영접할 이들을 생각했더니 참 기쁨이 샘솟는다. 참 평안과 영생을 선물하는 기회를 얻어 행복하다.

나의 소원은 노달리와 삼산리 주민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다. 주민들 모두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아서 천국 백성이 되는 날까지 복음 전하는 일을 주저하거나 게을리하지 않기를 기도한다.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제목에 응답해주시려고 온누리전도학교에 보내신 것 같다. 주민들에게 예수님을 전하기 위해 5분 전도 기본전문을 숙지하고, 하루 한 명 이상에게 유일하신 예수님을 전할 것이다. ‘날마다 111 전도운동’에 앞장 서는 목회자가 될 것이다.

## ■ 큐티스쿨 수료 간증



/ 정상근 성도(서대문공동체)

우리 아버지의 생애는 고통과 고난의 시간으로 점철된다. 한국전쟁으로 동생을 비롯한 조부모 및 일가친척들과 이산가족이 됐다. 남한으로 피난하고 정착하기까지 장남의 책임이 막중했다. 폐결핵으로 어려운 시기도 보내셨다. 돌이 채 지나지 않은 핏덩이 막내를 포함해서 사남매를 남겨두고 하나님 곁으로 간 아내를 잃은 고통까지 숏한 고난의 연속이었다. 그 가운데서도 흔들림 없이 하나님을 신뢰하고, 귀감이 되는 삶을 살고 계신다. 나는 아버지를 보면서 하나님을 알아갔다.

나는 지금까지 기독교 신앙에서 떠난 적이 없다. 그러나 나에게 하나님은 지극히 높고 멀리 계신 존재였다. 나는 늘 불안했다. 죽음에 대한 공포와 원인 모를 불안이 엄습했다. 장성해서 마음에 큰 공허가 찾아왔을 때 온누리교회 월요일 어노팅팅 예배에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다. 그분의 놀라운 사랑을 알게 됐다. 깊은 영적 체험과 말씀을 통해 하나님과 달콤한 시간을 보내면서 불안이 떠나갔다. 변함없는 것 같았던 신앙생활에 언젠가부터 문제가 생겼다. 요동치는 환경에 따라 내 마음이 온탕과 냉탕을 오갔다. 뜨거운 사랑을 맛보았음에도 나는 왜 아버지처럼 한결같은 믿음을

## 나의 아버지처럼

갖지 못하는지 자괴감이 들었다. 아버지의 믿음은 도대체 어떤 믿음이길래 저렇게 변함이 없을까 궁금했다. 돌아켜 생각해 보면 아버지는 매일 새벽기도와 말씀으로 하루를 여셨다. 카알 히티의 〈잠 못 이루는 밤을 위하여〉라는 책을 읽으면서 하나님과 교제하셨다. 늘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과 깊은 교제하는 것이 믿음을 잃지 않는 비법인 것 같다.

큐티에 대해 어느 정도 안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나의 큐티는 다소 의욕적이고 형식적이었다. 분주한 일상에서 우선순위가 밀리는 날도 있었다. 하나님이 주시는 그날의 말씀에 귀 기울이는 것을 게을리하기도 했다. 공동체와 함께 하는 큐티스쿨은 내 신앙생활의 문제점을 가감 없이 드러냈다. 노치형 목사님의 강의와 하용조 목사님의 책 〈큐티하면 행복해집니다〉를 읽으면서 이론과 실제의 삶을 어떻게 연결하는지를 배웠다. 조별 큐티나눔에서는 서로 받은 은혜를 공유했다. 그 시간이 지속적이고 깊은 큐티 생활의 동기부여가 되었다.

새벽기도를 다녀오신 아버지께서 아침마다 나에게 들려주셨던 하나님의 말씀이 떠오른다. 나도 아버지처럼 아이들과 그들의 아이들에게도 귀한 신앙의 유산을 물려주고 싶다.

## ■ 선교지에서 온 편지



/ 피터, 조안 선교사(모리타니아)

## 그래도 희망을 붙잡습니다

살롱! 주 안에서 강건하셨는지요? 사하라에서도 어김없이 해가 뜨고 지고, 한 달이 순리대로 흘러갔습니다. 모래바람은 조금 잦아들었는데 그 대신 라마단 기도 소리가 공중을 매일 가르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위대하신 하나님 아버지는 이들을 향한 사랑의 메시지를 끊임없이 보내고 계십니다. 주의 사랑은 어디서나 총만함을 찬양합니다.

4월 13일부터 시작된 라마단은 한 달 동안 이어집니다. 해가 떠 있는 동안은 물도 마시지 않고 열심을 내어 금식하는 이들과 함께 우리의 일상도 잠시 주춤거립니다. 일하다 배가 고파도 친구들이 먹지 않으니 우리도 먹지 못하고 집으로 돌아와 늦은 점심을 허겁지겁 먹습니다. 이곳 사람들은 해가 지는 저녁 7시 20분경부터 해가 뜨는 새벽 5시가 되기 전까지 낮 동안 먹지 못한 하루 세끼를 먹습니다. 평소 먹지 못하던 사람들도 라마단 기간에는 살림을 팔아서라도 먹을 것을 사서 그들만의 축제를 펼칩니다. 낮에는 잠이 부족해서 여기 저기 사람들이 누워있는 광경이 펼쳐집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 ‘진정한 금식’에 대해 많은

묵상을 하게 됩니다.

어린이 생명 살리기 활동을 위해 현지 NGO와 협약을 맺었습니다. 매주 그 단체와 어린이의 건강을 측정하고, 영양실조가 있는 어린이들을 돕는 사역을 배우고 있습니다. 최근 긴급하게 도움이 필요한 아기를 국립병원 어린이병동으로 데려간 일이 있었습니다. 그곳에 입원 중인 아기를 만났는데 현지인 자원봉사자의 조카였습니다. 그 아기는 소두증이 있는 ‘찌르노 함두’입니다. 별다른 조치를 받지 못하고 누워있는 아기를 기도로 응원했지만 며칠 살지 못하고 하늘로 돌아갔습니다. 아픈 자에게 손을 얹고 기도하면 살아나는 기적을 원했지만 그렇지 못했습니다. 이곳의 의료기술로는 생명을 살리는 일이 너무 어렵습니다. 며칠 동안 많은 고뇌를 했습니다. 어떻게 기도해야 할까? 우리는 무슨 일을 어떻게 해야 할까? 그래도 우리는 희망을 붙잡고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생명이 주께 있으니 죽고 사는 것은 주께 맡기고, 우리는 참 생명을 전하는 길을 만들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이 땅에 있는 목적이기 때문입니다.

## ■ 와이무슬림 수료 간증



/ 이숙경 권사(강남D공동체)

## 무슬림 전도는 기쁜일!

온누리교회에서 와이미션과 전문인선교학교(OPMS) 교육을 받으면서 선교에 대한 생각이 많이 바뀌었다. 전문인선교학교 아웃리치로 요르단을 다녀온 적이 있다. 거기서 시리아 난민들을 섬기는 윤 선교사님 부부를 만났다. 사실 나는 무슬림이 복음을 받아들이는 게 왜 힘들고 위험한 일인지 잘 이해하지 못했다. 그런데 ‘와이무슬림’ 강의를 들으면서 무슬림 한 사람이 기독교인이 된다는 것 자체가 참으로 어렵다는 것을 이해할 수 있었다.

와이무슬림 첫 강의에서 이슬람 역사를 배웠다. 용어 자체가 너무 낯설고 어려웠다. 하지만 무함마드의 역사와 이슬람을 배우면서 재미있었다. 이슬람의 신앙과 구원에 대해 배우면서 IS가 왜 생겼는지도 이해할 수 있었다. 무슬림들이 6신5행의 교리를 지키는 것이 신실한 것 같지만 내적으로는 항상 두려움을 가지고 생활한다고 했다. 그들이 불쌍해 보였다.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믿는 것이 아니라 맹목적으로 믿는 신앙만 알고 있기 때문이다. 그들을 위해 기도해야겠다는 마음이 들었다.

두 번째 강의를 들을 때만 해도 기독교와 이

슬람의 신학과 문화가 다르고, 맹목적이라 전도 자체가 어렵겠다고 생각했다. 무슬림들이 복음을 받아들이기 힘든 이유에 대해 강의를 들으면서 ‘다가가기 힘들겠구나’ 싶었다. 하지만 기독교인들이 무슬림을 대하는 자세 때문에 그들이 복음을 받아들이지 못한다는 생각이 들었다. 하나님은 무슬림도 끊임없이 사랑하고 계심을 잊지 말아야겠다.

와이무슬림 강의를 들으면서 선입견이 사라졌다. 무슬림에 대한 긍휼한 마음을 가지고 그들을 사랑해야겠다. 그들 또한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귀한 영혼임을 기억하고, 그들에게 새 생명을 전해야겠다.

한국에 와 있는 난민, 유학생 등 모든 외국인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기를 기도한다. 그들이 하나님을 믿고 훈련받아서 모국으로 역파송 되기를 기도한다. 나 또한 도울 수 있는 일이 있으면 물질이든 기도로든 열심히 돕고 싶다. 무슬림을 전도하는 것이 어려운 일이 아니라 기쁜 일이라는 것을 알게 해주셔서 감사하다.

## 장로칼럼

### ‘달려라! 풍당’



김정훈 장로  
(OCC공동체,  
CGNTV운영위원)

“자전거만 타지 말고 기독 OTT ‘풍당’ 후원해보는 건 어때요?” 올해 2월 CGNTV가 기독 OTT ‘풍당’을 론칭했다. 어떻게 하면 기독 OTT 풍당을 알리고 응원할 수 있을까 고민했다. 이무송 집사님과 자전거를 타면서 좋은 아이디어를 얻었다. 코로나19 이전 열리곤 했던 ‘CGNTV 후원을 위한 골프대회’처럼 자전거를 탄 만큼 기독 OTT 풍당을 후원하는 행사를 열어보는 아이디어였다. 그 아이디어는 곧바로 실천으로 이어졌다. 머리를 맞대고 기도하고 의논한 끝에 운동도 하고, 기독 OTT 풍당도 알리고, 기독 OTT 풍당 키즈 콘텐츠도 후원하는 1석 3조 캠페인 ‘달려라! 풍당’이 탄생했다.

달려라! 풍당은 코로나19로 집에만 있어서 피로감이 극심한 요즘 딱 맞는 캠페인이다. 자전거, 걷기, 달리기, 러닝머신, 실내 사이클 등 다양한 방법으로 운동하고, 운동한 거리만큼 후원하는 캠페인이다. 후원금은 기독 OTT 풍당 키즈 콘텐츠를 제작하고, 허입하는데 사용된다. 지난 5월 22일부터 시작된 달려라! 풍당은 6월 22일까지 약 한 달 동안 이어진다. 나는 매주 70~80km씩 자전거를 타서 한 달 동안 500km를 채울 예정이다. 고맙게도 우리 순원들이 내가 운동한 만큼 후원하기로 약속했다.

가족들과도 함께 식사하고 운동하는 자리를 마련해서 CGNTV와 기독 OTT 풍당을 위해 기도할 예정이다.

기독 OTT 풍당은 말로 설명할 수 없을 만큼 다음세대에게 꼭 필요한 미디어 라이

브러리다. 청년부 멘토를 할 때 청년들에게 CGNTV를 잘 활용하는지를 물어본 적이 있다. 청년들은 TV 앞에서 기다렸다 시청해야 하는 CGNTV를 거의 보지 않는다고 했다. 콘텐츠를 기다렸다 보는 시대가 지나간 것이다. 보고 싶을 때 찾아서 골라 보고, 보고 싶지 않아도 알고리즘이 추천 해주면 보는 시대다.

양질의 콘텐츠를 얼마나 확보하고 있는지가 관건이다. 전 세계 굴지의 기업들이 사활을 걸고 웨이브, 티빙, 옥수수, 넷플릭스, 아마존 프라임, 디즈니 플러스 등 차별화된 OTT를 출시하고 있다.

기독교에도 믿고 볼 수 있는 기독 OTT가 필요했다. 그래서 기독 OTT 풍당이 탄생했다. CGNTV는 한 영혼을 위해서 지난 17년 동안 복음을 전 세계로 흘려보냈다. 좋은 콘텐츠가 정말 많았다. 그런데 남겨진 콘텐츠가 별로 없다. 이제 막 첫발을 내디딘 기독 OTT 풍당도 미진한 부분이 있다. 그렇지만 1년, 5년, 10년 뒤에는 분명 다를 것이다.

양질의 키즈 콘텐츠를 제작하고, 허입하기 위해서는 많은 재정과 노력이 필요하다. 무엇보다 온누리교회 성도들의 관심과 기도가 필요하다. 달려라! 풍당에 동참하면서 온 가족이 기독 OTT 풍당을 이해하고, 널리 알리는 시간을 갖기를 바란다.

감사하게도 많은 성도들이 달려라! 풍당에 동참하고 있다. 1,200명이 목표였는데 5월 22일까지 2천 명이 참가신청을 마쳤다. 6월 7일까지 참가신청 할 수 있다. 모든 온누리교회 성도님들이 동참했으면 좋겠다.

가족이 모여서 기도하고, 공원 한 바퀴 도는 것도 다음세대를 구원하는 실천이다. 우리 순처럼 체력 좋은 순원이 나서는 것도 방법이다. 모처럼 달려라! 풍당으로 교회가 떠들썩했으면 좋겠다. 매년 달려라! 풍당 캠페인이 이어지기를 간절히 바란다.

## 권사칼럼

### 위로(We:路)의 시간



조옥환 권사  
(강남D공동체)

2021년을 시작하면서 공동체 어머니인 권사가 어떻게 하면 공동체 가족들과 가까워지고, 기도로 동역할 수 있을지 고민했다. 하나님께 기도하던 중에 권사와 순모의 모임을 활용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곧바로 순모들께 매주 순식구들의 기도제목을 권사와 순모들이 모여 있는 단체대화방에 나눠줄 것을 요청했다. 귀찮을 수도 있는 부탁이었는데 순모님들이 한 사람도 불평하지 않고 순종해주셨다. “권사님들, 순모님들과 함께 하니 참 든든하고 힘이 된다”, “기도의 동역자가 있어 감사하다”, “공동체 순식구들의 기도제목을 보면서 많은 도전을 받는다” 등 받은 은혜도 함께 나눠주셨다.

강남D공동체에는 6개의 다락방이 있다.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한 다락방씩 기도제목을 나누고 함께 기도하기로 했다. 권사와 순모의 모임을 통해 공동체 가족들의 형편을 알게 되고, 함께 기도하면서 더욱 끈끈한 관계가 되었다.

권사와 순모의 모임에는 늘 축복이 넘친다. 하루는 새로 순모가 되신 분들, 권사가 되신 분들을 위해 모든 권사와 순모들에게 간단한 소개를 부탁드렸다. 가족사진과 각자의 소개 글을 올려달라고 부탁했는데 단순한 소개를 넘어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 담긴 신앙 간증을 올려주셨다. 부담될 수도 있었을 텐데 함께 해주셔서 감사했다. 올라오는 간증에는 서로 답글을 달아주며 축복하고 위로하는 가슴 따뜻한 시간을 보냈다. 감동적인 글 몇 개를 나누고 싶다.

“아침에 출근하면서 바쁘게 글을 올렸습니다. 이제야 겨우 교실에 앉아 도시락을 먹으면서 여러 권사님들과 순모님들의 따뜻한 위로와 응원의 말씀을 읽습니다. 남겨주신 말씀들

을 보며 감동해서 울었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한 자녀로서, 동역자로서 주시는 사랑이 큰 힘이 됩니다. 많은 분들의 따스한 마음 덕분에 행복한 하루였습니다. 오늘이 꼭 제 생일 같네요!”

“순모님의 간증으로 더욱 몽클해진 아침이 너무 좋고 감사합니다. 어떤 말도 필요 없는, 마음 속 깊이 그저 느끼고만 싶은 감동입니다. 주님의 터치, 순모님의 터치로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메신저가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일과 가정, 게다가 순모의 역할까지 감당하시는 귀한 섬김을 응원하며 축복합니다. 순모님의 고백으로 오늘 제 하루의 시작이 어제와 다르게 반짝반짝 빛이 나네요.”

“저는 육아를 하던 시절 직장 아이들에 지쳐서 순모님께 순예배에 못 나오겠다고 말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철두고 돌아보니 죄송하고 면목이 없네요. 가끔 그때를 생각하며 여전히 부끄러움을 느끼고 있습니다. 순모님들 모두 응원하고 사랑합니다.”

이처럼 권사와 순모들이 모인 단체대화방에서 모두 열거할 수 없는 은혜와 축복의 말들이 오갔다. 간증들을 보면서 나 역시도 눈시울이 붉어졌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언제나 기적 이요, 기쁨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코로나19로 모두 지치고 힘든 와중에 삶을 나누고 은혜를 나눌 수 있는 동역자들이 있어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른다. 이 시간을 더욱 멋지게 기억하고 싶었다. 이길탁 목사님(강남D공동체)께 권사와 순모들을 위한 시간을 만들어 달라고 부탁했다. 목사님께서 ‘권사님과 순모님들의 위로(We:路)의 시간’이라는 멋진 주제를 정해서 온라인 만남을 주선해주셨다. 줌(Zoom)과 보이는 라디오로 두 번에 걸쳐 감동의 드라마를 맞보았다. 글로 나누던 감동에 영상이 더해져서 더 깊은 은혜를 체험할 수 있었다. 하나님께서 강남D공동체를 사랑으로 돌보신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함께 길을 걷고 있는 권사님들과 순모님들께 위로와 사랑, 축복을 전한다.

## 신앙에세이



정호석 목사  
(나고야 온누리교회)

현재 일본은 코로나19 감염 확산으로 다시 한번 정부가 긴급사태를 선언했다. 나고야 온누리교회가 있는 아이치현도 벌써 세 번째 긴급사태가 선언되었다. 다행히 나고야 온누리교회 성도님 중에서는 코로나19 감염자가 나오지 않았다. 예배당 출입 전 손 소독 및 환기 등 성도님들이 방역에 적극적으로 협력하고, 서로 조심하는 분위기가 형성되어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나고야 온누리교회에서는 코로나19 팬데믹이 시작되고 주일예배를 영상으로도 드릴 수 있도록 했다. 지금도 예배당 예배와 유튜브 채

널을 이용한 영상 예배를 병행해서 드리고 있다. 성도님들의 약 절반 정도가 예배당 예배를 드리고 있고, 나머지가 영상 예배를 드리고 있다. 빨리 코로나19 확산이 멈추고, 백신이 신속하게 공급되어서 안전한 환경에서 성도님들이 예배드리고, 교제 나누기를 기대하고 기도하고 있다.

큰 병을 앓고 1년 동안 수술과 재활을 반복하던 집사님 한 분이 계신다. 그 집사님이 오랜만에 교회에 출석해서 예배를 드렸다. 집사님이 갑자기 쓰러졌을 때 의사선생님에게 “마지막을 준비해야 할지도 모른다”는 절망적인 진단을 들었다고 한다. 평소 누구보다 건강했던 분이라서 본인은 물론이고 가족들과 교회 성도님들에게 큰 충격이 아닐 수 없었다.

집사님은 “자신이 건강을 회복해서 예배드릴 수 있는 것은 모두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하셨다. 집사님이 오랜만에 교회에 출석한

날이 바로 부활주일이었다. 집사님이 내게 이렇게 말했다.

“목사님, 하나님이 저에게 두 번째 생명을 주셨습니다.”

그 집사님은 부활주일에 누구보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감격하고, 눈물 흘리시며 감사하셨다.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니 이제는 눈으로 주를 뵈옵나이다”(욥 42:5).

육신의 병을 통해 만난 예수님이 집사님의 병을 치유하시고 회복하게 하셨다. 새로운 생명으로 부활하게 하셨다. 바로 그 예수님이 집사님의 예수님이자 우리 모두의 예수님이 되기를 소망한다.

최근 교회에 나오게 된 새신자가 있다. 그분은 일본인과 결혼했다. 오랜 시간 고생하면서 일본에서 터전을 일구셨다. 교회에 대한 부정적인 인상은 없었지만, 별다른 관심이 없었다.

그런데 힘든 일을 경험하면서 혼자 고민하다 생전 처음 교회에 오게 되었다.

그 새신자의 이야기를 들어보니 그분 뒤에서 기도하신 수많은 사람이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한국에 있는 따님이 계속해서 어머니를 위해 기도했다. 그분 근처에 사는 이웃과 직장을 통해 알게 된 나고야 온누리교회 성도님도 그분을 위해 기도하셨다.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 귀한 영혼을 교회로 인도하셨다.

나는 골방에서 하는 성도들의 기도가 반드시 일본의 영혼들을 주께로 돌아오게 할 거라 믿는다. 계속해서 일본에 있는 7개 비전교회와 일본의 영혼들을 위해 기도해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일본에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망한다.



## 주일강단

(3면에 이어)

# 상처 준 가족 용서하기

처벌했습니다. 자신은 갚을 수 없는 빚을 탕감 받았는데, 갚을 수 있는 빚을 진 사람은 탕감해주지 않고 왜 처벌 했을까요? 두 가지가 연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 사람은 자신이 갚을 수 없는 빚을 탕감받았다는 것을 믿지 않고, 그것을 누리지 않았습니다. 만일 백 데나리온 빚진 자를 탕감해줬다면 자신이 얼마나 값진 용서를 받았다는 것을 날마다 누리고 체험하며 살았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서는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주어진 하나님의 용서를 체험하지 못하는 까닭은 우리가 다른 이를 용서하고 있지 않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뒤집어 말하면 다른 이를 용서한 만큼 우리가 하나님의 용서를 체험하고 누린다는 것입니다.

## 용서는 새로운 기억을 선택

셋째, 용서는 망각이 아니라 새로운 기억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용서를 원하지 않고 거부하는 많은 이유 중 하나가 “나쁜 일을 아무 일이 없던 것처럼 해 주는 것 아니냐”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용서는 악행을 망각하는 것이 아닙니다. 요셉이 자신을 소개할 때 “당신들이 종으로 팔아 넘긴 요셉입니다”이라고 했습니다. 악행을 망각하고 지운 것이 아니라 새로운 기억을 선택한 것입니다. 어떻게 그것이 가능했습니까? 형들에 대한 복수의 권리를 하나님께 내어드렸기 때문입니다. 심판자는 하나님입니다. 후에 야곱이 죽자 형들이 “이제 요셉이 지금까지는 아버지 때문에 참았는데 이제 우리를 해칠 것이다”라고 생각하고 두려워 앞드렸습니다. 그때 요셉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겠습니까?” 여러분, 모든 악행에 대한 심판은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요셉은 형들의 악행을 망각한 것이 아니라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악행에 대한 심판의 권리가 자신에게 있지 않고 하나님께 있다고 믿었습니다. 하나님께 맡겨 드렸습니다. 요셉이 선택한 것이 무엇입니까? 새로운 기억을 창조하는 것입니다. 새로운 기억이란 새로운 미래입니다. 새로운 기회입니다. 요셉은 새로운 미래의 문을 여는 것을 선택했습니다. 만일 요셉이 과거에 겪은 악행에 대한 기억에 묶여서 복수하는 일에만 몰두했다면 새로운 미래의 문이 열리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요셉은 악행에 대한 복수는 하나님께 맡기고, 새로운 미래를 바라봤습니다. 하나님께서 가족의 생명을 지키는 일에 자신을 사용하신다는 것을 바라본 것입니다. 요셉이 형제들에게 말합니다.

“요셉이 형제들에게 말했습니다. ‘제게 가까이 오십시오.’ 그들이 가까이 오자 요셉이 형제들에게 말했습니다. ‘제가 형님들이 이집트에 팔아 버린 형님들의 동생 요셉입니다.’ 하지만 형님들이 저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거나 자책하지 마십시오. 이는 하나님께서 생명을 구하시려고 저를 형님들보다 먼저 여기로 보낸 것이기 때문입니다”(4-5절).

우리가 용서할 수 있는 것은 어떤 악행도 하나님께서 선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악이 저절로 선으로 바뀌지는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통로가 용서입니다. 십자가가 통로입니다. 십자가는 인류 최대의 악행이었습니다. 가장 큰 흠이 없고, 죄가 없는, 완전하고 의로우신 분을 불법으로 무고하게 수치와 모욕을 당하게 하고, 최고의 고통으로 죽게 했습니다. 십자가는 최고의

악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십자가를 구원의 십자가로 바꾸셨습니다. 수치의 십자가를 영광의 십자가로 바꾸셨습니다. 죽음의 십자가를 생명의 십자가로 바꾸셨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께서 “아버지여 저들을 용서하소서”라고 기도했기 때문입니다. 십자가에서 용서의 기도가 드러났습니다. 십자가에 매달린 예수님께서 화목제물이 되셨습니다. 그래서 악행이 하나님의 선으로 바뀌었습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고, 그분 안에 거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요셉과 같이 용서할 수 있는 능력의 은혜를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악을 선으로 바꾸실 때 사용하는 통로가 십자가의 용서입니다. 우리가 가족에게서 받은 상처를 도저히 용납할 수 없고, 받아들여지지 않고, 이해되지 않고, 받아들이기 어려워도, 십자가의 용서를 붙잡는 사람에게는 모든 악행이 하나님의 선으로 됩니다.

요셉에게는 가문의 생명을 지키는 일이었지만 성경 전체를 보면 아브라함의 언약이 요셉을 통해 이루어지는 엄청난 사건이었습니다. 장차 십자가를 통해 이루어진 대역전의 사건이 이루어지는 예표가 되었습니다. 요셉은 깊은 상처를 받았지만, 십자가의 용서를 통해 가족의 생명이 보존될 수 있는 미래의 선을 선택했습니다. 자신을 잃고 있던 기억에서 자유로운 기억으로, 자신을 두렵게 하는 기억을 용기 있는 기억으로, 자신을 아프게 했던 기억을 능력 있는 기억으로 변화시켰습니다. 고통은 망각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기억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과거의 망상을 무너뜨리고 새로운 미래의 소망을 여는 것입니다. 고통스러운 과거로 닫혔던 미래의 문을 열게 합니다. 우리가 이 문을 열고고만 한다면 성령께서 도와주실 것입니다. 우리에게 은혜의 마중물을 더하여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할 수 없었던 용서를 하는 능력을 주실 것입니다. 과거의 열매임에서 자유로워지고, 새로운 미래, 하나님의 선하신 손길을 체험하는 인생으로 변화될 것입니다.

/ 정리 김남원 부장 one@onnuri.org

## 피(血)로회복 프로젝트 ‘생명나눔의 기적’ 간증



문미연 집사와 남편 추광호 성도.

사랑하는 온누리교회 가족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동경 온누리교회 문미연 집사입니다. 제가 이렇게 펜을 들게 된 것은 온누리교회 성도님들께 감사를 전하기 위해서입니다.

제 남편은 1991년 당뇨 판정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큰 지장 없이 생활했습니다. 그러다 상태가 안 좋아져서 2005년 6월 23일 신장이식을 받게 되었습니다. 제 신장을 남편에게 주었습니다. 다행히 남편은 건강을 회복했습니다. 한 가지 아쉬운 점은 이 일을 계기로 남편이 하나님을 믿기를 바랐는데 여전히 세상을 향해 있었습니다. 지난해 일이 벌어졌습니다. 남편의 상태가 갈수록 악화됐습니다. 엄청나게 높은 염증 수치가 나왔고, 일본 병원에서는 다리를 무릎까지 절단해야 한다고 진단했습니다. 이미 발가락 두 개를 절단했고, 발바닥도

20cm 정도를 굽어낸 상태였습니다. 남편은 이대로 다리를 자를 수 없다면서 한국에서 치료를 받겠다고 했습니다.

우리 부부는 1월 31일 한국에 왔습니다. 한국에 왔다고 문제가 해결된 게 아니었습니다. 자가격리를 하고 있어서 투석을 해주는 병원을 찾을 수 없었습니다. 종합병원마다 연락했는데 침상이 없다는 이유로 거절당했습니다. 남편은 일주일째 세 번 투석 받지 않으면 안 되는 사람입니다. 저는 너무 절망해서 화장실에 들어가 주저앉아버렸습니다.

“저의 힘으로 해보려 했으나 안 됩니다. 잘못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부터 해야 했는데... 하나님, 제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제발 살려주세요.”

간절하고 절박한 제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어주셨습니다. 한 전도사님을 통해 간신히 의사 선생님과 연결되었고 남편이 응급실에서 투석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코로나19 때문에 입원실 배정받는 게 힘들었는데 병실도 배정받아서 원래 목적이었던 수술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남편은 일본에서 상처 봉합도 하지 못한 채 한국에 왔기 때문에 한시라도 빨리 수술하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의사 선생님께서는 허벅지 살을 떼어내 발바닥을 파낸 부분에 이식하고, 혈관과 혈관을 잇는 수

술(유리피판술)을 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8시간이나 걸리는 수술이고, 수술하는 동안에는 계속 수혈을 받아야 했습니다. 여기서 문제가 생겼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 혈액을 공급받기가 힘들었기 때문입니다. 가능하면 ‘지정헌혈’(대상을 미리 지정해 놓고 하는 헌혈)을 해야 한다고 하더군요. 갑자기 누구한테 헌혈을 부탁해야 할지, 막막하기 이를 데 없었습니다. 바로 그때 온누리교회 성도님들이 실천하고 있는 ‘피(血)로회복 프로젝트 생명나눔의 기적’이 생각났습니다. 저는 간절한 마음을 담아 편지를 썼고, 그 편지가 이재훈 담임목사님께 전달되었습니다. 그리고 정말 많은 성도님들이 이름도 얼굴도 모르는 우리 남편에게 지정헌혈을 해주셨습니다. 그 덕분에 남편이 무사히 수술을 마칠 수 있었습니다. 남편은 수술 후에도 계속 수혈을 받아야 했습니다. 수술 후 5일째 되는 날 수혈할 피가 도착하지 않아서 뜬 눈으로 밤을 지새웠습니다. 그날 남편이 처음으로 제 손을 잡고 기도해달라고 하더군요. 남편을 전도하기 위해 수없이 많은 날을 눈물로 기도했습니다. 그럼에도 남편의 세속적인 성공과 자신의 의를 세우려는 바벨탑 같은 마음이 쉽사리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사업 실패와 좌절 속에서도 하나님을 외면하고 자신의 힘으로 인간됨 쓰는 남편을 보면서 ‘하나님, 남

편을 불쌍히 여겨주소서’ 라는 기도밖에 할 수 없었습니다. 그런 남편이 먼저 기도해달라고 했습니다. 저는 남편의 두 손을 잡고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이제부터 하나님만 의지하며 살겠습니다.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은혜로 회복시켜주소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러자 남편이 “아멘!”이라고 화답했습니다. 큰 도움을 주신 온누리교회 성도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정말 큰 사랑이었습니다. 이 사랑의 빛을 어떻게 갚아야 할지 알 수 없습니다. 고마운 마음이 가득합니다. 여러분의 중보기도와 헌혈 덕분에 제 남편이 살았습니다. 이재훈 담임목사님과 일본어예배 김철희 목사님, 동경 온누리교회 후쿠자와 목사님, 병원까지 직접 찾아와 격려해주신 두 권사님, 서울과 동경 온누리교회 성도님들의 이루 말할 수 없는 사랑 덕분에 한 생명이 살아났습니다.

우리 부부는 6월 6일 다시 일본으로 갑니다. 남편은 일본으로 돌아가면 신앙생활을 제대로 해보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세례도 받겠다고 했습니다. 한 개의 씨이 땅에 떨어져 커다란 나무가 되고, 그 그늘로 수많은 사람이 쉼을 얻을 줄 믿습니다. 우리 부부가 받은 큰 사랑을 나누며 살겠습니다. 온누리교회 성도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 밭간 양반

강원도 평창 첩첩산중에 자리한  
‘산마루 예수공동체’ 이주연 목사와 노숙인 형제들이  
함께 써 내려가는 자립자활 프로젝트!



Su\*\*ul

먼지와 땀이 뒤범벅되어 씨름하는 형제님들의 촉촉한 눈망울이 참 감동입니다!



Hey\*\*l

너무 재밌게 잘 봤어요! 저도 나중에 컷을 때 목사님처럼 섬기면서 살고싶어요.



J\*\*n

밭간 양반으로 불리셔도 너무 잘 어울려서 감동이고 감사합니다. 웃음이 멈추지 않는데 왜 이리 눈물이 그치지 않는지요.

매주 금요일 저녁 7시 업로드

 유튜브 **KNOCK노크** 채널 검색